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회보 2012년 가을 제128호



이화동창

2012년 가을 제128호



- 02 • 가을의 시 산수유나무 | 이선영
- 03 • 총동창회장 인사말 후반기 행사 위해 단합된 힘이 필요 | 조종남
- 04 • 기획특집 가을에 생각하는 삶의 지혜 | 조성한 김순영 박관순 송명숙 오혜숙 우미형
- 16 • 기획시리즈 노교수와 두려운 제자들 | 언론홍보영상학부
- 21 • 기획시리즈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극작가 이희준
- 24 • 기획시리즈 2012 이화 유망작가-김아영 박유정 이은영 | 추천 김미경
- 28 • 자랑스러운 이화동창 황연대 김숙자
- 32 • 이화사위석 숙명적 만남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 | 신기남
- 34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파푸아뉴기니 | 조선향
- 36 • 그때 그시절 그교정 적은 돈으로 누린 즐거움들, 그리고 추억 | 양영옥
- 38 •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사랑아, 우리를 몰아 어디로 가려느냐 | 정끝별
- 41 • 총동창회 소식
- 47 • 대학소식
- 50 • 과·학부 소식
- 53 • 국내·해외지회 소식
- 61 • 모교소식
- 65 • 동창소식
- 68 • 신입동창 명단
- 73 • 동창이 펴낸 새책
- 74 • 축하합니다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호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2012년 여름 제128호 비매품 | 발행 · 2012년 10월 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계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우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 2012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가을의시

산수유나무

이선영

처음부터 그는 나의 눈길을 끌었다
키가 크고 가느스름한 이파리들이 마주보며
가지를 번어올리고 있는 그 나무는
주위의 나무들과 다르게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기 위해
잠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산수유나무라고 했다
11월의 마지막 남은 가을이었다
산수유나무를 지나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이를테면 천 년 전에도
내가 그 나무에 내 영혼의 한 번뜩임을
걸어두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되풀이될 산수유나무와 나의
조우이리라는 것을
영혼의 흔들림을 억누른 채
그저 묵묵히 지나치게 돼 있는
산수유나무와 나의 정해진 거리이리라는 것을

산수유나무를 두고 왔다 아니
산수유나무를 뿌리째 담아들고 왔다
그 후로 나는
산수유나무의 여자가 되었다

다음 생에도 나는 감탄하며 그의 앞을 지나치리라

후반기 행사 위해 단합된 힘이 필요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온통 더위 얘기가 인사였으니 까요. 또 그 후에 두 차례 태풍으로 농작물과 수산물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창님들 댁에는 비피해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니 날도 시원해지고 머리가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름이 참으로 귀한 휴가였다고 고백합니다. 6월 하순의 해외파송 단기 선교단을 배웅하는 예배를 끝으로 휴가를 가지면서 그동안 바쁘게 배우고 행했던 일들을 반추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가 후 8월 중순에는 5월에 시행했던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출품작 전시회를 함으로써 다시 후반기 동창회 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기의 시작인 9월 임원회에서는 대학원 졸업생의 정회원 문제 등 총동창회 회칙 개정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5월 대바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해외 지회 중 규모가 큰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총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며 이어서 11월 26일에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숨어서 사회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도 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후보 동창을 일일이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에 후보자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동창들의 귀한 나눔과 배품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창들께서 분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모든 행사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행사에도 동창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문님들과 많은 동창님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양손으로 다섯 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 다섯 개의 공은 일,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자신인데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올라오지만 건강, 친구, 가족, 자신의 네 개의 공은 유리공이어서 떨어뜨리면 금이 가거나 깨어져 버린다” 는 제임스 패터슨의 말같이 다섯 개의 공을 잘 조정하여 제대로 된 균형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 동창님이 되시기를 이 가을에 기원합니다.

기획특집

가을에 생각하는 삶의지혜



노년에 활기 주고 기초체력 향상시키는 포크댄스

조성환 (체육 49, 이대 체육대 명예교수)



포크댄스란 일명 민속무용이라고도 한다. 한 지역의 민간(전승)의 춤을 말하는 것이다. 민속무용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30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대에 오신 김신실 선생님의 의해서 1932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교재로 채택되었다. 또한 해방이 되면서 이화여대 체육과와 처음으로 한국무용과 민

속무용이 정과로 채택되었다. 민속무용이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55년 서울 YWCA가 회원을 위해 각 클럽에서 지도한 것이 처음이며 세계YWCA를 통해서 각국의 민속무용 자료를 수집하여 서울 YWCA 보건체육부에서 1957년 제 1회 포크댄스 강습회를 개최한 것을 시발점으로 15회에 걸쳐 레크레이션과 포크댄스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학교와 사회 교육의 교재로서 민속무용을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더욱 1973년부터는 한국 여성체육학회 민속무용 연구분과 위원회에서 외국의 저명한 민속무용 지도자를 초빙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고 국제적인 학술단체인 ICHPER와 국제여성체육스포츠포럼(IAPESGW) 정기총회 때마다 민속무용 연구

논문 발표와 실제 지도를 통해 비교 체육과 민속무용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넣은 것은 학회의 큰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포크댄스의 문화적 가치는 한나라와 지방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져 내려오는 춤으로서 교양, 예술의 뜻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 편리성 혹은 높은 교양과 같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한 예술풍의 요소 일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 혼합된 문화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포크댄스는 선조들의 문화적 유산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다. 각 나라의 춤을 추고 있는 동안 개인은 물론 각 국가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뛰어넘을 수 있다.

포크댄스의 다양한 움직임은 우아하고 세련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리듬감과 협응력, 평형감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치가 있다. 사회적 가치로서는 대부분의 포크댄스가 여

러 사람이 함께 하는 단체 활동이므로 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예의를 배우며 건전하고 밝은 이성 간 교제 및 세대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포크댄스는 움직임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무용의 종류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가치도 있다. 포크댄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세가지 효과 이외에도 포크댄스는 민속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사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생활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제가 되고 살아 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크댄스는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해지는 춤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크댄스는 연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오직 신체활동 그 자체로서 그치기 쉬운 다른 스포츠와 달리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포크댄스는 종류가 수만종에 이르고 지역과 국





가 민족에 따라 특이하고 다양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춤을 추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으며 개인의 체력과 흥미 관심에 따라 춤의 선택이 가능하다. 간단한 움직임부터 어려운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느리고 빠른 음악과 함께 이루어지는 포크댄스는 신체적인 효과 외에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이고 풍부한 감정을 부여한다.

또한 그 다양함으로 흥미를 잃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이 없는 현대인의 건강생활에 적합한 스포츠다.

고령자들의 특성은 체력의 감퇴, 난청, 시력감퇴, 성인병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기억력의 감퇴와 사회에서의 고립, 고독 등으로 인간 자신감 상실을 들 수 있다. 이렇수록 포크댄스는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서 즐길 수 있는 리듬운동으로서 고령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체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음악도 이해하고 21세기 대비하는 건강하고 풍부한 사고를 지닌 능동적인 국민을 위하여 여가활동으로서 포크댄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필자는 1949년 모교 졸업 후 교직생활 37년 동안 포크댄스를 지도해 왔으며 새로운 춤을 외국에서 배워와 강습회도 여러 차례 해왔고 현재는 모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체육관Ⅲ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포크댄스를 즐기고 있다. 은퇴 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포크댄스 지도에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동창들께서도 스트레스 해소, 노화방지, 친목 도모를 위해 포크댄스를 권하고 싶다.

동창회 봉사는 큰 축복

김순영 (약학 62, 이화여대 15대 총동창회장)



‘동창’이라는 말은 우리가 숨을 따뜻하게 그리고 설레게 만듭니다. 특히 동창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마음은 물론 인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과 합심하여 동창회 일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도전인 동시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총동창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동창회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사(私)가 아닌 공인(公人)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봉사’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동창회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도전이라고 한 것은 동창회 일이 철저히 공적인 것이므로 생각과 판단은 물론 시각의 중심이 항상 동창회의 정체성이나 그 존재 의의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며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동창회를 섬겨 오면서 수없이 어렵고 판단을 요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정(正)도로서 돌파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이화정신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많은 동창들이 큰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시는 많은 이화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항상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모색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 하려는 이화의 교육, 즉 이화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에서 교육받았는가 하는 자량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이화동창들의 삶이 이 사회를 정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화 역사의 훌륭한 전통을 배우고 계승해야 할 뿐 아니라 시대변화에 적응하면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고문으로서 저는 인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동창들과 함께 '동창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창회는 너무나 소중한 많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회 전반에서 지도자로 활약하는 수많은 동창이 있지만 동창회 자체는 비정치적인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느 시대에나 투명한 동창회가 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모교에 대한 사랑과 협력인 애교심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총동창회에서 해마다 '아름다운 이화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것도 곧 우리가 봉사하는 삶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화정신을 소중히 지켜 온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동창회의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일이나 저희 15대 동창회 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동창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음악회와 바자회, 100년사 편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파주 프로젝트기금으로 50억 모금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 것에 자량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며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15대 임원들의 수고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동창회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더욱 더 값진 일이며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숲에 빠져사는 삶의 기쁨

박관순 (법학 72, 법과대학 동창회장)



중학교 2학년 단발머리 소녀 시절일 때, 나보다 9살 위의 오빠는 영문과 대학생이었다. 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빠의 책꽂이에서 닦치는 대로 뽑아서 읽은 책이 있었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비롯해서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셀로 등 4대 비극,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 T.S 에리엇의 황무지, P.B 셸리의 서풍부, 애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애너벨리 등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영문과 학생이 읽어야 할 최소한의 교과서 정도의 책이었던 것 같다.

그 뜻을 알고 모르고 또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읽었다. 읽다가 싫증나면 책장을 덮었다.

베니스 상인의 가혹하다 못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돈에 대한 철저함에 치를 떨었고,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이 자신의 완전범죄를 과시하려고 벽을 툭툭 치는 순간에 ‘야아웅’ 하고 소리친 고양이의 영악함과 그 놀람은 지금도 나에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워즈워드의 무지개를 읽으면서 자연의 넓은 품에 선명하게 자리한 무지개를 그리며 그 너머

의 미래를 상상하곤 했다.

애너벨리를 읽으면서 사랑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가슴에 닿아왔다. 한 편으로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애너벨리를 동경하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면 사랑은 해볼 만하지 않은가?

셸리의 서풍부 마지막 부분에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탈피할 희망을 주는 구절이기에...

그런 저런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던 시절이었다.

대학 4년의 시절은 전공인 법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철학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본 것이다. 심지어 어떤 책은 내가 최초의 대역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나도 너무 어려워서 차례와 저자의 말만 보고 반환한 책도 많았다.

플라톤의 국가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이렇게 어려운 책을 억지로라도 읽은 것이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출판사를 시작해서 교정을 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렵고 딱딱한 책인 법학 관련 서적과 사회과학 서적을 학생 시절에 읽어냈기에, 비교적 인내심을 갖고 교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회사의 교정사원은 남편과 나 둘 뿐이었다.

그로부터 37년 동안에 2500여 종의 책을 출판하였다. 교정에서 손을 떼 지는 오래지만 지금도 신간이 나오면 어김없이 나의 책상에 올라온다.

새 책이 나올 때마다 감동이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자, 이제 거친 세상에 나가서 너의 할 일을 해야지...”

다듬고 다듬어서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낸다.

‘독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되어라.’ 하며 기도하며 내보낸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많던 서점들도 좀 더 수입이 많은 업종들로 바뀌어서 사라졌다. 책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책 속에 길이 있다.” 라고 외치고 싶다. 어릴 적 무심코 집어들어서 읽은 책은 내게 평생 자양분이 되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아름다운 노년, 또 새로운 여정을 꿈꾼다

송명숙 (국문 73)



지난 5월 여행도 그랬다.

미 국에서 공부하는 작은 딸의 졸업식 참석을 핑계로 졸업식 앞뒤로 일정을 길게 잡아 여행을 하자고 시작한 건 분명 남편이었는데 이 궁

리 저 궁리를 하며 일정을 짰 건 나였다. 우선 떠날 수 있는 날과 돌아와야 하는 날을 잡고, 딸네 집에 도착하기 전 열흘 남짓은 둘만의 여행으로, 졸업식 뒤의 한 주는 딸아이와 셋이서 하는 여행으로 그 일정은 딸에게 일임했다.

별로 내키는 데가 없어 고심 끝에 LA에서 1번 해





안도로를 운전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갔다가 앰트랙을 타고 시카고를 경유해 딸에게 가는 계획을 세웠다. 앰트랙 홈페이지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지 환상적인 문구로 유혹했지만 주변에 아무도 기차여행을 했다는 사람이 없었다.

네이버에 물으니 명예지식인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감동적이었다. 그 감동 덕분에 카페에 가입해 물어가며 계획을 세웠다.

어디를 구경해야 하는지는 물론 차량 렌트하는 방법부터 기차표 예매하는 방법, 구글 지도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가는 방법, 스마트폰에 유심 칩을 바꿔 끼워 미국에서 저렴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여행에 관한 구체적인 모든 정보가 카페에 다 있었다.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카페지기의 헌신적인 노력이 신선하고 놀라웠다. 마침 운 좋게 미국에 사는 그가 한국에 와 설명회를 연다 해서 참석도 했다. 우리 같은 나이는 안보였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갑자기 쭈어진 느낌으로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 느낌과 4년 전 미국 여행의 내공이 공항에 내리는 길로 차를 렌트해 알지도 못하는 길을 운전하는 무리한 일정도 소화시켰으리라. 관광지 목록에 얽매이지 않고 즐기는 여유도, 56시간동안 3,500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기차 여행도 그 힘이 바탕이었다고 믿는다.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가 들끓을 때 우리 부부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실천하고 있었다. 샌디에고에서 반 년가량 살다 온 것이다.

당시는 그렇게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고 스스로에게도 눈치가 보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내느라 애썼다.

처음 핑계는 미국 캔자스에서 공부하는 작은 딸과 1년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연수를 받게 된 큰 딸아이 방문이었다. 그동안 깃발 따라 다니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것에 놀라고 식상해 있었기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다른 형태의 여행을 꿈꾸었던 것 같다. 부부가 둘 다 일을 접고 자유로워진 참에 삶의 터전이 아닌 곳에서 정착한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질시부터, 열심히 살았으니 그렇게 즐길 자격이 있다는 격려에, 이제 싸울 일밖에 안남은 나이에 둘이서만 6개월을 지낸다니 무슨 그런 해괴한 계획을 세우냐는 등 각가지 반응을 뒤로 하고 우리는 떠났다.

샌디에고에서 딸 아이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침실 하나짜리 작은 집을 따로 얻어 소꿉장난처럼 살았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신혼 때도 못해 본 일들이었다.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싼 값에 살림 장만도 하고..., 운전면허증을 따 친구들 만날 때도 ride를 부탁하지 않고 겁 없이 운전하고 다녀 칭찬도 받고..., Adult school에 다니면서 다국적의 다양한 사람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도 해보고..., 국립공원 1년 패스도 사서 다니면서 지내다 돌아온 추억이 새롭다.

걱정이 많던 남편도 가끔 그 얘기를 하며 즐거워한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지만 우리 집은 내가 지도를 본다. 언제부터 어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남편은 귀찮다고 운전이나 포터만 해주겠다고 해 성질 급한 마누라가 일정을 짜게 만들고는 막상 떠나려 하면 꿈을 떨며 확인하는 통에 이것을 또 하나봐라 싶고, 마음도 상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반추할 추억이 늘어나니 되풀이할 수밖에...

곧 손녀딸을 돌보아야 할 것 같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즈음 나는 다시 새로운 여정을 꿈꾸고 있다. 젊음은 우연한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이라지 않는가?

사진 찍기 가주는 감탄, 감동, 감사의 삶

오혜숙 (의학 76, 오혜숙산부인과 원장)



피부에 스치는 쌀쌀한 가을 공기가 행복한 기분을 안겨주는 요즈음이다. 엠마뉴엘 칸트는 삶을 ‘장엄의 미학’이라고 했다. 감탄과 감동과 감사하는 삶은 이 장엄

함에 구체적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나는 이를 ‘3감의 삶’으로 이름 지었다. 3감의 삶을 살 때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자연 속에서 이 3감을 실천하는 일 중의 하나가 ‘사진 찍기’이다.

그간 병원 일에 너무 바쁘게 살다가 몇 년 전부터 매주 하루를 쉬기로 했다. 그 하루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 사진 촬영을 떠나는 나만의 시간이다.

사진은 아침빛에 찍어야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되기 때문에 해뜨기 전후와 해지기 전후가 황금시간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매우 부지런해야만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

4년 전에 대학 선배님의 권유로 사진생활을 시작했으며 사진 강의를 열정적으로 들었고 동호인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졸릴 때에도 사진을 보면 특히 좋은 작품을 보면 잠이 싹 달아나고 감탄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오해숙동창이촬영한작품

새벽 여명에 안개 자욱한 소나무 숲을 만나고(보은 임한리), 제주(사려니 숲)의 삼나무 숲에서 짙은 안개 속에 하였던 촬영은 그 자체가 황홀과 행복이었다.

봄이 되어 얼음 속에서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와 노루귀, 양지꽃, 처녀치마, 얼레지등 수많은 야생화를 보게 되면 보물을 찾은 듯 기뻐하며 이들의 강한 생명력을 그림에 담는다. 이어 산수유와 매화, 개나리, 진달래, 복사꽃과 유채꽃 등 화려한 색의 봄 동산을 마음껏 누비며 다닌다.

강원도 장전계곡의 이끼와 계류를 찍으며 미끄러져 좀 다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깊은 산속의 신비가 느껴지는 시원한 사진을 보면 부상은 별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비경의 많은 섬도 찾아가고 또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니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며 찍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음을 느낀다. 또한 특색 있는 여러 지역의 별미도 맛보고 즐기는 기쁨도 있다.

거문도 출사에서 백도의 일출을 찍으러 갔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새벽 4시에 작은 배를 타고 1시간 걸려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 흔들흔들 배에서 보니 멀리 바다 위 몇 개의 섬들 사이에서 붉은 둥근 해가 예쁘게 떠오르는데 어찌나 멀미가 심했던지 그 순간 심하게 토하며 그냥 누워버렸다.

그러나 내 일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지 하며 다시 일어나 강한 정신력으로 계속 셔터를 눌렀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일출 작품을 얻을 수 있었다.

산 전체가 다 분홍색이었던 제주 영실의 철쭉동산과 멋진 안개속의 오름들, 슬로우 시티 청산도의 노란 유채 밭과 바람이 보이는 보리밭과 푸른 바다, 우리 땅 독도와 갈매기들, 울릉도의 비경들, 청정지역 풍도의 봄 야생화들, 화야산의 보라빛 얼레지들과 야생화들, 비금도의 갈대와 일출 일몰의 비경들, 방태산폭포의 여름과 가을 풍경, 영산강의 유채밭, 고창의 보리밭, 인제 자작나무숲의 4계, 불갑사의 상사화와 화엄사의 홍매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 생각난다.

작년에는 제 14회 전국 의인 미전 사진 부문에 ‘우



포의 금빛 아침'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전국의 사진 공모전에 17번의 입상과 입선을 통해 대한민국 사진 작가협회 정회원이 되었으며 또 이대 의과대학 동창회보의 표지로 소나무 사진이 채택되기도 하였고 두 차례의 동호회 그룹전에도 작품을 내는 등 많은 결실이 있었다.

또 한국여자의사회와 이대동창회의 자선 바자회에도 작품을 내놓아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었다. 또 어디 가나 사진작가라며 서로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인기가 좋다. 또 좀 부담스럽지만 내년 4월엔 의과대학 졸업 35주년 기념으로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삼인삼색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발로 찍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 찍으려면 열정을 가지고 많이 다녀야 좋은 소재를 만날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되고 건강도 다지게 된다.

또 찍기에 몰두하다보면 그 동안은 온갖 괴로운 일과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엔돌핀, 세레토닌 등의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

사진은 건전하고 품위 있는 예술분야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는 감성과 피사체를 사진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취미로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요즘 디지털카메라는 보급형으로 저렴하고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전에 필름으로 찍을 때와는 다르게 찍은 사진을 즉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마구 찍어도 필름 걱정이 없다. 그냥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

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임하면 반드시 큰 기쁨이 오리라 믿는다.

사진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노년층에게도 잘 맞는 취미이다. 퇴직 후 마땅한 취미를 찾을 때엔 사진생활을 권하고 싶다.

앞으로 나 자신 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이 그려낸 그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

아주 작은 아름다움에도 이 3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자연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셔터를 눌러본다.

젊고 멋지게 사는 법, 댄스

우 미 형 (의직 77)



미국 와서 한 달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던 1988년 10월의 어느 날 갑자기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조심스레 문을 여니, 웬 몸집이 큰 미국남자가 커다란 빨간

장미 꽃다발과 남편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

Dear darling, I have been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during the last 10 years of marriage. Thank you for your devotion as wife and mother. I'm sure the remaining years of our life will be filled with much love, happiness and



health.

Your devoted husband J W Choi,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내용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제일 예쁘게 입고, 보란이 수희도 예쁘게 입히고 기다려....”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하얀 정문을 들어서서 넓은 정원을 5분정도 지나 궁전 같은 건물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디너를 맛있게 먹고 이층에 올라가니 몇몇 쌍이 댄스를 추고 있었다.

그 중 특히 눈에 띄이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부부가 아들 손자 등 가족들과 함께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다.

두 분의 멋진 모습에(특히 70대 할머니의 코발트색 원피스와 코발트색 구두) 빠져있을 때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우리도 앞으로 저 멋진 노부부 같이 살자”고 말했다.

1991년 한국에 와서 dance를 배우려고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댄스에 대한 상식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댄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막상 댄스를 시작하고 보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댄스는 영국 황실무도에서 흘러 나왔으며 댄스 교과서(원서)도 있었다. 학구파인 남편은 댄스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듯이 연구하며 열심히 하였다. 당시 30평대 아파트에서 특히 왈츠는 공간이 모자라 거실 소파를 한쪽으로 물고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연습을 했다.

결혼 20주년, 25주년 때에도 다른 부부들은 보석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받지만 우리는 댄스파티를 열었다. 지금 시간이 흘러 생각해봐도 참 멋진 시간, 멋진 추억을 남겼던 것 같다. 댄스를 시작하고 나서 남편이 친구들한테 댄스를 하면 좋은 점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곁에서 들어보았다.

—매일 보는 아내의 얼굴이지만 댄스 파티 때 멋지게 성장한 아내의 모습에서 아내의 또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한다.

—TV나 영화를 보거나 골프를 치는 것보다 댄스를 하는 것이 아내를 마주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댄스는 어느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시간, 때,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할 수 있어서,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댄스 음악이 담긴 CD, dance shoes, 간편한 댄스복은 갖고 다녔다. 우리집 오디오에는 늘 댄스 곡이 들어 있다. 물론 자동차에도.. 집안 일을 하다가도 기분전환할 겸,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과 같이, 때로는 혼자 우리 거울을 보며 왈츠, 차차차, 룸바 등을 연습하며 즐기게 된다. 산책을 하며 거닐 때도 두 팔을 벌려 스트레칭도 할 겸, 팔 동작 연습을 하며 걷게 된다.

예쁜 모습을 만들려고 항상 자신의 자세와 표정을 의식하게 된다. 이런 순간 순간이 거듭되다보니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항상 기분이 up되는 것 같다.

처음 시작은 그냥 로맨틱한 분위기에 반해서, 한 번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 보고 싶어서 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우아한 왈츠,



강렬함과 절도 있는 표현을 하는 탱고, 눈빛 마주침으로 가까이 다가갈 듯 말듯 한 애절함을 표현해주는 룸바, 경쾌함을 주는 차차차, 젊음을 만끽하는 듯한 빠른 템포의 Jive, 로맨틱하고 우아하고 경쾌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Viennese Waltz, 그 밖에 Fox Trot, Quick Step, Samba, Pasodoble 이상 10가지 댄스가 국제 댄스 경기 대회 종목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르바, 브루스, 아르헨틴 탱고, 살사, 그 때 그 때 유행하는 방송 댄스(원더걸스의 노바디.., 싸이의 오피안 강남스타일..)도 접하게 되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방송 댄스를 접할 때는 마치 내가 젊은 대열에 같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댄스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니 여러 종목들을 다 해보고, 이제는 한 종목 한 종목 멋지

고 예쁜 자세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 지금도 남편과 열심히 댄스를 하고 있으며 아령회(가정대/생활환경대 동창회) 동창들과도 댄스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즐거운 댄스 시간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댄스를 하면 좋은 점을 정리해본다.

-즐거운 음악속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젊어집니다.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몸의 라인이 아름다워집니다.

-치매 예방으로 걷기운동 하는 것보다 탱고를 배우는 것이 균형감각, 자세, 근육조정 기능에 더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댄스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음악속에 살게 됩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으로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젊게 살아요!”

대한민국 언론 홍보의 달인 키운 김동철 교수와 그 제자들



아래 왼쪽부터 이경순, 차경애 동창. 김동철 교수, 장명수, 박화숙 동창
위 왼쪽부터 유영선, 이경숙, 유세경, 탁은희, 김훈순, 차희원 동창

노교수의 회상

사제간의 정 넘치던 초창기

김동철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1993년 2월 정년퇴임

내가 이화여대의 신문학과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한 것은 학과가 창설된 바로 이듬해, 그러니까 이 나라에 4.19 민주혁명이 일어난지 1년 후인 1961년 봄부터이었고, 1기생이 2학년으로 막 진 급한 때이었다. 그후 1년 반 동안 시간강사로 봉 직한 후 1962년 9월 학기부터 조교수 발령을 받고 전임으로 강단을 지키기 시작한지 30년 6개월 만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모두 합해 32년 동안 선배·동료 교수님과 재학생과 동창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내 평생의 정열을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어 큰 행운이었다.

그동안 나는 학과에서의 교직생활을 곁하면

서, 교육대학원, 시청각교육연구원, 기획조정실(오늘의기획처), 그리고 평생교육원 등 4개 기관의 창설 업무와 해당기관 운영 책임을 맡아 모두 함께 17년 동안 보직교수 생활을 하느라고 학과 학생 교육만에 전념을 기울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아도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어, 나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의 나날이었던 것을 하나님과 이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과 창설 초기의 일들을 회상해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의 연속이었다. 1기생이 4학년에 들어선 1963년 여름방학 때, 첫 작품이 좋아야 한다고 졸업 예정인 최고 학년 학생의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를 시키던 일이 생각난다. 그 해 봄부터 윤희중 선생님이 시간을 맡아 출강하셨고, 9월에는 정충량 선생님이 부임하시게 된 터라, 학과장이신 이해창 선생님의 부탁에 따라 주로 내가 취업을 위한 과외 공부의 지도를 도맡았었다.

여름 방학기간과 취업시험이 있기 직전의 11월말까지의 방과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실시된 스파르타 식 훈련과 실습은 참가 학생들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많은 힘이 들었지만 지칠 줄 모를 정도로 열심히 그 일을 해냈다. 시사영어, 상식, 논문 쓰는 요령 등을 주로 지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KBS를 비롯한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위한 발성법, 뉴스 읽기 등의 실기 지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TV가 없던 그당시 라디오 뉴스 기사 작성과 읽기의 연습 때문에, 매일 밤 10시 경까지 학교 실습실에 남아 쓰기와 읽기의 연습을 되풀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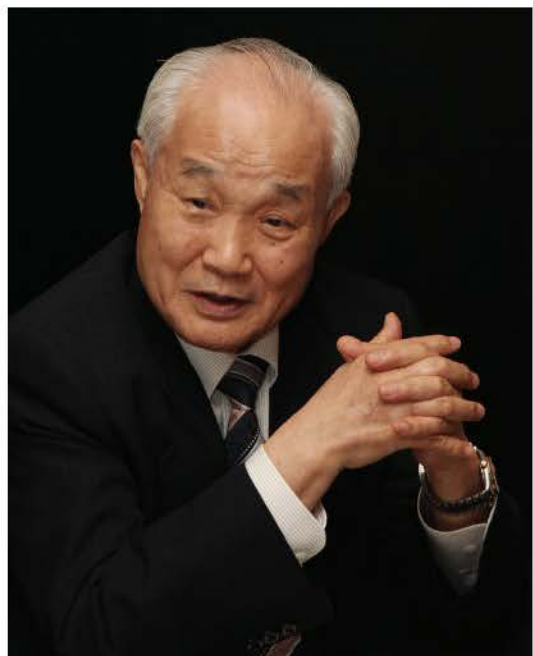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 노력은 했지만 이런 과외공부가 별로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겠는데도, 워낙 학생들이 우수했던 까닭에 그 해 취업시험

에 여러 명이 합격했다. 국 영문의 일간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 등 그 폭도 매우 넓었다. 그야말로 훌륭한 수확을 거두어 첫 작품으로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흐뭇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도 특히 학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학생이나 졸업생의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던 그 당시의 학과장이 이해창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어느 해인가 분명치 않지만, 새 학기가 되어 모두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아무 연락 없이 며칠을 결석한 학생이 있었다. 시골집에 전보로 알아보니 학비 조달이 어려워 아직 등록금 납부를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이해창 선생님이 당시 월급에서 가불해 등록금의 반액을 대납하시고 분납 절차까지 봐주셨다.

선생님 덕은 박봉의 어려운 살림을 사모님의 수고로 힘들게 꾸려가고 계셨지만 선생님은 형편이 어



려운 많은 제자들을 남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제자 사랑과 고매하신 인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지만 그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4년 앞둔 지금, 우리는 머리 숙여 그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초창기의 특별활동 중 가장 큰 행사는 해마다 신문의 날을 즈음해서 공연하던 학과 연극 공연이었다. 기획에서부터 무대의 막을 올릴 때까지 2-3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홍보업무도 담당하던 학생들이 얻는 교육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힘도 많이 들고 돈도 적지 않게 드는 일이었지만 학과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2회 공연 때였는지 3회 때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막을 올려야 할 금요일 저녁, 연극공연 총연습을 하게 되었다. 그

런데 출연진들이 미처 대사를 못 외워 쫄쫄 매자 외부에서 초빙해온 연출자가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집에 못 가더라도 만족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하기로 하고 밤새도록 무대 위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연습을 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으니 나도 귀가할 수 없어 연습장과 교수실을 왕래해가면서 철야를 하고 새벽에 연습장을 들여다 보니 지친 학생들이 여기저기 의자위에 움츠린 채 모두 잠이 들어 있지 않은가!

아직도 쌀쌀한 4월 초의 밤기운에 난방이 꺼진 C관 414호실 무대 위가 얼마나 추웠을까. 급히 학교 숙직실에서 담요를 빌려다가 이 학생 저 학생 덮어주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지나간 날들은 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저마다 바쁘고 삭막해진 요즘과는 달리 학과 창설 초기의 우리가 보냈던 학교생활은 사제지간의 푸근한 정과 대학다운 낭만이 넘쳐흐르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의 이야기

전문가의 길 가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선생님

차 경 애

66, 한국YWCA연합회 회장

선생님은 30대 중반에 우리과 교수님으로 오셔서 보도사진론을 가르치셨다. 젊은 교수님이라 열정이 대단하셨고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있

었지만 ‘권위주의’는 전혀 없으셔서 우리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셨다.

선생님은 “보도사진은 일반사진과 달리 생생하게 살아움직이는 사진”이어야함을 항상 강조하셨다. 이 과목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암실작업과 필름 정리다. 선생님은 사진인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학관에 암실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직접 현상, 인화하는 작업을 실습하게 하셨다. 그런데 현상할 때 hypo라는 약물을 타는데 이 약물이 손에 닿으면 손톱이 누렇게 변한다. 여학생의 손톱이 누렇게 되면 외모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찍은 사진을 직접 현상하고

인화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암실작업을 했다. 실습할 때는 선생님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신혼이셨던 선생님이 밤늦게 들어가셔서 사모님께 많이 혼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선생님은 필름정리 하는 방법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다. 학교를 졸업한 후 YWCA출판부 간사로 일하게 됐을 때 필름정리를 배웠던 것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른다. Y에서는 행사도 많고 사진 전시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진과 함께 필름을 잘 보관하는 것은 사진론을 훈련과목 중의 하나로 넣어 행사사진의 요령과 필름 보관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했고 이 훈련을 통해 전국 회원Y의 필름 정리를 통일시킬 수 있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어디가서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일을 잘 하고 있는 지 관심가지시고 남편의 안부도 물으시면서 학교에서만 스승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

‘교수’가 천직이신 팔순님은 ‘동철 오빠’

이경순

67, 미디어비평가,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선생님을 처음 뵈 건 1963년 늦겨울 입학 시험 면접장에서였다. 예나 이제나 한결같은 신부드러운 어조로 “학교 신문 만들어본 경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왜 그리 떨리던지....

그로부터 무려 49년의 긴 세월 동안 내가 뵈 선생님은 마치 가르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가 천직이신 분이다. 누군가가



1기 졸업생인 장명수 이사장과 김동철 교수

하나를 여쭙보면 열 개를 가르쳐주려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선 바쁠 땐 절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농담이 떠돌 만큼 가르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분이시다.

‘기사 작성’ 시간에 “취재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취재 대상의 인적 사항을 학별이나 경력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취미나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것까지 충분히 조사해서 처음 만나는 취재 대상이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은 언론 현장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도움이 된 가르침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이대학보> 기자 노릇에 몰두하느라 필수과목인 ‘보도사진’ 시간에 수업도 빼먹고 실습 과제도 제출하지 않아 F학점을 받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못 했다”는 뻔뻔한 핑계에 카메라까지 빌려주시며 특별 보강을 해주신 일은 백번 감사 드려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가 하면 1966년 봄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데

모로 대학가가 시끄러울 때 진압경찰들이 방망이를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아대는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모대 맨 앞줄에 서셨던 분도 선생님이시고, 연극반 학생들이 공연 전날까지 연습을 못 끝내 학교에서 밤을 새며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되자 연습장에서 함께 밤을 새며 교수님 담요를 가져다 지쳐 쓰러진 제자들에게 덮어 주신 분도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의 대단하신 제자 사랑은 1회 졸업생인 장명수 선배(현 이화학당 이사장)가 한국일보 사장이 됐을 때 너무도 기쁜 신나머지 축하를 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일로도 유명하다.

또한 이화에 재직하시는 동안 김옥길 총장님의 오른팔로서 중요한 보직을 두루 맡아 헌신하셨고 특히 힘들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입시관리를 여러 해 동안 아무런 하자 없이 전담하신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하겠다. 평생 변함없는 날씬한 체격과 동안으로 우리 학창 시절 애칭 ‘동철 오빠’의 면모를 팔순 지난 연세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훌륭하신 사모님과 출중한 자녀분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다복하시기를 기원한다.

선생님, 재학 시절 선생님 속 많이 썩여드린 부끄러운 제자가 감히 고백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상한 친정아버지처럼 모범 보인 선생님

유 세 경

86, 이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대학교 3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놀기

좋아했던 우리 동창들은 당시 대한민국을 휩쓴 디스코 열풍에 빠져들었고, 저녁 먹기가 무섭게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디스코텍에서 밤새 춤을 추면서 놀았다. 춤추고 노는 우리들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김동철 교수님께서는 호텔방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새 테이블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셨다.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한 몇몇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교수님을 방으로 올라가시게 할까하고 여러 가지 묘안을 짜냈지만 교수님은 꿈쩍 않고 자리를 지키셨다.

2박3일의 광란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우리는 모두 뻘어서 잠을 자거나 맥없이 앉아 있었다.

기차에는 입석표를 사, 서서 기차를 타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구를 지날 즈음, 할머니 한분이 기차에 오르셨다.

하지만 입석표를 사셨는지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서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피곤했고 입석표를 산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서서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 하고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김동철 교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해드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교수님께 죄송스러워 얼른 저희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교수님께서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운동 삼아서있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들의 강한 권유에 결국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번갈아가며 자리에 앉으며 서울로 올라왔다.

교수님께서서는 야단치시기보다는 우리를 보듬어 주셨고 직접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서 우리를 가르쳐주셨다. 마치 자상한 친정아버지처럼..

뛰어난 재능과 신선한 감각의 소유자 극작가 이희준 (약학92)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 보니, 아마도 이화 예술인 인터뷰 중에서 가장 젊은 연배인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무슨 과를 졸업하셨나요?

1988년도 약학과를 입학해서 1992년에 졸업했어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신방과 교수로 있으면서 뮤지컬 연극 대본을 쓰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학을 전공한 것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군요. 어떻게 대학 때의 전공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성격도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나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그저 앞날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이 뚜렷하게 없으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생각에 맞추게 되지요. 저 자신도 약학이라는 학문이 싫지 않았구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서 약학과를 졸업하고 일 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다보니 별로 즐겁지 않아서 그만 두었어요. 그때 비로소 약학이라는 것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요. 평소에 연극을 너무 좋아했기에

본격적으로 연극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국예술 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1기로 입학하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 뉴욕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Musical Theatre Writing을 전공하고 예술 석사(MFA)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 활동하다가 2009년에 서강대학교 신방과 교수가 되었고, 뮤지컬과 연극 대본 창작과 스토리 구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완전히 저의 진로를 전환하게 되었지요.

●뒤늦게 전공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큰 결단을 잘 내렸군요.

그동안 공연한 연극이며 뮤지컬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뮤지컬 창작 공연작으로 첫 번째가 2005년에 〈하마가 난다〉였어요. 그 작품으로 제 15회 서울 어린이 연극상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뒤로 첫사랑, 내마음의 풍금, 사춘기, 미녀는 괴로워, 달콤한 인생, 마마 돈 크라이, 라 레볼뤼시옹, 파리의 연인, 미남이시네요, 쌍화별곡 등을 발표해서 공연했습니다. 연극으로는 2004년 〈박제 갈매기〉라는 작품을 공연하고 나서, 줄리엣을 위한 바이올린 소곡, 햄릿...유령선, 베토벤 이야기, 미스터 로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애너벨 리 등이 있습니다. 번역 작품으로는 고두심 주연의 〈연강호〉, 윤석화 주연의 〈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많은 대본들을 쓰고, 제 14회 한국뮤지컬 대상 극본상, 제 15회 서울 어린이 연극 극본상을 위시해서 수없이 많은 수상을 하였으니, 전공을 바꾸지 않았으면 아까운

예술인이 그냥 파묻힐 뻔 했군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지요?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2001년에 미국에서 함께 연극 공부를 했던 선배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뮤지컬과 연극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길을 걸으니깐 여러 면에서 동지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아이는 열 살 된 아들 하나가 있구요.

●이화여대 약학과를 다닐 때의 추억과 스승님,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자유로움이나 설레임 같은 것은 없었어요. 약학과는 그저 고등학교 3학년의 연속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라서 늘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 밖에는 추억이 없어요. 그저 고등학교에서 같이 간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고, 약대에서 만난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따르는 스승님도 없었고, 늘 외롭다는 생각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감은 무엇인가요?

저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창작의 기본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아주 심하지요. 또 이런 일들이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무대 장치와 배우들의 연기와 종합적인 연출 등이 어우러진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공연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지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외롭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서로 도우면서 해결하게 되니까 즐겁고 힘이 나기도 하지요.



이희준작 뮤지컬 첫사랑 제작발표회

●이대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 다닐 때와 갓 졸업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이대에 대해서 애정이 가고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대 출신 이라면 정이 생기고 친근감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대에 대해서 실없는 농담이 떠돌아다니면 저 도 모르게 발끈하곤 합니다.

가장 풋풋하고 순수했을 때 한 교정에서 함께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대를 나온 것이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동창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창들이 잘 되어야 학교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끝없이 발전해가는 모교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좋은 작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선주/불문 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희준 약력

이대 약학과(92),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98)

New York University (Musical Theatre Writing 전공) 예술석사(MFA, 02)

창작공연작

2012 뮤지컬 쌍화별곡 (유니버설아트센터), 미남이시네요 (세종M씨어터), 파리의 연인 (디큐브아트센터)

2011 뮤지컬 라레볼뤼시옹 (연우소극장)

2010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설치극장 정미소),

뮤지컬 달콤한 인생 (대학로예술극장)

2008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충무아트홀)/ 제3회 더뮤지컬어워즈

최우수창작뮤지컬상 수상, 사춘기 (설치극장 정미소)/ 제3회 더뮤지컬어워즈

소극장창작뮤지컬상 수상, 내 마음의 풍금 (호암아트홀)/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2007 뮤지컬 첫사랑 (이대)

2005 뮤지컬 하마가 난다 (사다리소극장)/ 제1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우수상 수상

연극

2011 애너벨리, 2009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2007 미스터로비, 베토벤 이야기 / 제2회 사다리어린이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

2006 햄릿... 유령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줄리엣을 위한 바이올린소곡 (2006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2004 박제갈매기 (2004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번역

댄스 레슨 (연강홀) 고두심주연 위트 (우림청담씨어터) 윤석화주연

수상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제1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극본상

기획시리즈 | 김미경 교수가 추천하는 2012 이화 유망 작가

도예가 김아영, 박유정, 이은영 다양한 가능성 시도하는 젊은 후배 작가들



이대는 1971년 국내대학 최초로 도예과가 생긴 이래 올해까지 38회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여성으로서의 문화적 리더역할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예교육의 한 중심에서 뛰어난 작가들을 배출하는 등 한국 현대도예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왔다. 도예과는 동창들의 정기모임인 도림회가 있다. 도림회를 통하여 동창의 소식을 공유하고 매년 정기전시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동시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지난 33년 동안 역량 있는 동창전시회로 자리잡아왔다. 특별히 이번 해에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33회 도림전은 요즘의 문화예술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 융.복합(Convergence)을 주제로, 도자라는 한 매체를 다매체 작업으로 전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매체의 진화가 어떠한 형식으로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였다. 그 가운데 전시의 주제와도 맥을 같이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후배 유망작가 세 사람을 추천한다.



김미경 |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 및 동 디자인대학원 졸업,
뉴욕대학교 대학원 도예조소전공 졸업,
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교수,
개인전 11회(서울, 뉴욕, 동경, 하와이)의
단체전 다수



김아영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학과 졸업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스터디스 전공 석사

2012 컨셉추얼 나눅 Vol.3 다큐 수직적이고 병렬적인 세계

2010 컨셉추얼 나눅 Vol.2 예고편 서사우주

2009 컨셉추얼 나눅 Vol.1 이야기는 나무에서 자란다

개인전 6회 및 단체전 다수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건조시키는 과정은 질료와의 무수한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며 가마에 넣어 소성할 때는 자칫 잘못될까 마음을 졸이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부른다.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시성과 성형에의 자유로움, 동시에 다분한 제한점과 그것을 아울러나가는 끈질긴 과정은 흙이 만지는 이의 모성을 자극하기에 그저 적합하다. 흙의 고고한 조형성에서 신비로움을 느꼈다면, 컴퓨터는 익숙해지면 상상력을 매우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매체이다. 컴퓨터 역시 무한한 진보가능성과 폐해를 동시에 가졌는데, 수작업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가 대체하고 있는 요즘은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한 예술 작품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차원의 디지털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는 캔버스를 뛰어넘고 있으며 특히 영상제작에서 필요 불가결하다.

김아영 작가는 도예전공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디지털미디어를 접목시키려 했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업 시에는 디지털과 순수미술을 연관 지을 방법에 대해 늘 고민했다. 흥미로운 것은, 둘의 어우러짐이 컨셉추얼 아트와 작업방식을 거치면서 이야기의 발생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박유정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학과 졸업

루이지애나주립대 미술대학 석사

2010-2011 LSU, Southern University 강사

2011 Artist in resident show, Baton Rouge

2010 Curate This! 2010 online exhibition

2010 Playground In-Between



박유정 작가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에서 주 에너지를 얻고자 다양한 문화가 얹힌 루이지애나를 선택했다. 본인을 신감(新感) 수집가라고도 지칭할 만큼 접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향한 갈증은 작가를 여행가로 만들었고, 작품세계 또한 새로운 세계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어떠한 용도를 위해 부수적으로 생성된 무용지물들, 의도되지 않게 창조된 것들, 버려지는 것들에는 우연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 우연에서 인간의 뇌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들이만 들어지고, 작가는 그것들을 주워들었다. 다듬고 손질해서 그 물질적 속성자체에 건축자재라는 용도를 부여했다. 구조물을 쌓아올리자 이들의 가치가 빛을 발했다. 사람들의 이목이 떠난 무용지물이 신세계 창조의 해답이었다. 작품 제작시의 능력 조합 원리는 균형과 불균형의 매력, 조화, 리듬감이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선들의 미에 약간의 엇박자를 던지며 운동감을 작품에 함축하고 있다.

구조물 시공 과정은 작가에게 놀이이자 계속되는 가상여행이다. 또한 구조재를 하나하나 다듬는 과정은 반복적이고 시간 비례적이어서 작가를 스스로의 세계에 더욱 몰두하게 한다.



이은영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학과 졸업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Master of Arts

2009 한국도자협회 창립전

2009 인천현대도예 - '노약하는 인천' 전

2009 International ceramics festival in Aberystwyth



작가가 5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
했던 아버지가 매년 죽음의 고비
를 넘겨야 했고, 죽어가는 사람
이랑 살아간다는 것은 얇은 유리
로 된 다리를 끝없이 걸어가는
것 같다. 2학년 초 작가의 아버

지는 돌아가셨다. 그 때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
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묵은 일기장을 들어내듯 떠오르
기 시작했다. 작가는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흙으
로 만들어내고, 가마에서 소성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음
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영국에
서의 유학생활은 조금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작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단어 100 가지를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무작위
적으로 선정한 그 단어 들 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선으로 이어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의 그
물은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그 그물이 더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하게 됐고 그물 구조를 레이스 뜨기, 가제, 금속
재료로 제작하고, 그것을 흙물에 적셔 어느 정도의 두
께를 형성시키고 그 위에 여러 점의 유약과, 용제를 섞
은 흙물을 부어, 가마 안에서 고온으로 소성해 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복잡한 단어의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작품 속 그물이 더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올림픽 최고상 제정의 주역

패럴림픽의 '황연대 성취상' 제정
황 연 대



진명여고, 이대 의과대학졸업(63)
3세때 소아마비에 걸림
이대 부속병원 인턴, 연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재활과 의사
사단법인 한국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 설립.
상임이사 취임(66).
미국 뉴욕대학교 재활의학과 연수(74)
정립화관 건립 및 관장 취임(75)
한국여의사회 홍보부장 겸 "여의사회보" 편집인(87-90)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88)
"황연대 극복상" 제정(국제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88)
한국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대통령직속기구, 88-89)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이사장(91-93)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91-93)
보건복지부 한국중장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91-05)
대한장애인체육회 상근부회장(98-05)

9월10일 열린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첫 공식 행사는 '황연대 성취상' 시상식이었다. 이날 한국 최초의 장애인 여의사 황연대 동창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등장하자 전광판은 그의 인생역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줬고, 관중의 환호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

황연대 성취상'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에서 처음 제정된 후, 국적이나 종교, 이념, 성적에 관계없이 장애극복의 의지와 도전정신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 준 남녀 각1명에게 수여됐다.

19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림픽부터는 공식적으로 폐막식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상'으로 계속되어 94년부터는 동계대회에서도 시상하고 있어 명실공히 패럴림픽의 최우수선수상(MVP)으로 꼽히고 있다.

언론인 아버지와 배화여고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7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황동창은 3세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얻었지만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최초의 좌절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어머니 등에 업혀 간 황동창에게 마루에 글을 긋더니 여기까지 달려보라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며 시작된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에게 아버지는 '네가 울어서 떨어졌다'며 매를 들었다. 온방을 기어 다니며 희소리를 피하던 황동창이 본 것은 안경 너머로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6학년 때 6.25전쟁을 겪으며 전시 중학교에 들어갔던 그는 서울수복 후 진명여중에 편입하게 되는데, 진명 50년 역사상 다리 불편한 그를 처음 받아주었다. 이때 그는 서대문 집에서 효자동 진명까지 전차를 타고 통학했는데 언니를 위해 같은 학교에 진

학한 동생이 그를 밀어서 전차에 태워주고 자기는 언니 뒤편까지 들고 걸어가서 도시락과 책가방을 갖다 주곤 했다.

문예반 활동을 하며 작가의 꿈을 키우던 고3 가을, 3년 동안 줄곧 그를 지켜보았다는 한문예반 남학생의 만남 제안을 받게 된다.

글 쓰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늘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나가보라고 허락하셔서 황 동창은 나중에 남편이 된 정은배 님과 처음 만났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정은배 님은 자신은 상이군인들을 위한 재활촌을 구상하고 있다며 황 동창에게 이를 함께 하기 위해 의사가 될 것을 부탁하고, 공부를 모두 마친 10년 후에 만나 결혼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황 동창은 동갑이지만 자신보다 열 살 이상 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던 그로부터 ‘재활’이란 말을 처음 들었고, 그 단어는 황 동창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이화여대 의예과에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면접에서 만난 교수님이 장애가 있지만 성적이 우수했던 황 동창에게 ‘들어와서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로 입학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저는 평생 저를 기꺼이 받아준 이화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인턴 들어갈 때 몸이 그래가지고 힘든 인턴 생활 견디겠냐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그랬어요. 마라톤 할 것도 아니고 댄서가 될 것도 아닌데 내 다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구요.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인턴은 마치겠다고 말씀드리자 받아주셨어요.”

그는 교수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특히 김

옥길 전 총장께서는 그가 셋이나 되는 동생들이 이화여대에 다니느라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등록금을 대주셨다.

1979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김옥길 전 총장께서 퇴임하시던 날, “황연대라는 사람이 각급학교 입학 때마다 교육부에 떼쓰러 오는데 그 친구는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쌍한 장애인들을 위함이니 될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기획실장을 불러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아끼셨다.

얼마 전 임명된 김신 대법관이 30년 전, 장애자라는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제외되었을 때 다른 장애를 가진 전문인들과 대법원장에게 재고요청을 해 판사의 길을 열어주었던 일 등 장애인을 위한 그의 헌신과 투쟁은 끝이 없었다.

1986년 이화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한 ‘아펜젤러상’ 수상자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을 때 사양하는 황 동창에게 ‘역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하라고 주는 거야’라는 김옥길 전 총장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 88년 한 언론사로부터 ‘오늘의 여성상’으로 받은 상금 200만원으로 무얼 할까 생각하던 황 동창이,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상을 주자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원래 ‘황연대 극복상’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때부터 IPC요청으로 ‘황연대 성취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상의 명칭대로 ‘이화에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봉사와 헌신을 성취한’ 황연대 동창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한다.

글. 백수경 신방79, 이화동창편집위원

대한민국 리듬 체조의 대모

이화여대 체육학과 명예교수, 박사

김 숙 자



이화여대 체육학과 졸업 (64년),
교육대학원 졸업 (72년 교육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91, 이학박사)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 교수, 체육학과장, 체육과학대학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캠프지도자 훈련강사,
한국레크레이션협회 전문위원,
현재 서울 YWCA 이사 및 '보건체육부' 위원장
전 국민체조 제정위원장, FIG 총회(세계체조연맹) 회의대표,
유니버시아드 국제심판 (영국 웨필드),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제심판, 한국여성체육회 회장,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부단장, KOC 상임위원,
IOC 여성체육분과위원 (Working Group Member),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고문 등
현재 대한체육회 자문위원, 한국올림픽 아카데미 회장

8월14일은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해 5위의 성적을 거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가 귀국한 날이다. 1985년 자신이 선발해 교육한 3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 최초로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단장으로 참석했던 우리나라 리듬체조의 대모 김숙자 교수가 그날 공항에서 손선수를 만났다.

처음 참가한 세계대회에서 높은 벽을 실감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던 리듬체조가 27년 만에 세계 5위로 도약한 기쁨을 김 동창과 손 선수는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의 장한 손연재를 만들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어요.”라고 반갑게 나누었다.

수도여중 1학년 때 체구도 작고 몸도 약해 조치가 조금만 길어지면 쓰러지기 일쑤였던 김 동창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막 만들어진 체조반에 지원했다. 체조반에 들면 체육 점수를 80점 이상 주겠다고 했던 석봉근 당시 체육선생님은 가냘픈 김 동창을 보고 해낼 수 있겠냐고 못미더워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유연성 시험에서 김 동창이 최고점수를 받은 것이다.

“처음 몸을 구부려 봤는데 머리가 발에 닿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제게 그런 숨은 능력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해 선수로 키워주신 석 선생님을 김 동창은 지금도 은인으로 모신다. 고 1 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여자개인부분을 수상할 정도로 체조의 국가대표가 되었고, 몇몇 대학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입학의 제안을 받았지만 김동창은 선수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이화여대로

진학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합숙을 하면서도 밤이면 이불 뒤집어쓰고 시험공부하고 가정 수예수제를 해야 하는 고된 입시생활을 기꺼이 견어내고 드디어 이화여대 체육학과에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이 기봉 대한체육회 회장과 부인인 박마리아 이화여대 부총장의 지원을 받으며, 1960년 로마올림픽 한국체조대표선수로 뽑혀 열심히 준비하던 중, 그만 4.19가 터지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는 메달 딸 수 있는 종목에만 선수를 보내기로 정책을 바꾸게 되고, 그는 고3 후배에게 1명의 출전티어를 양보하고 실의에 빠져 그해 여름을 보내게 된다. 그때 서울법대 3학년이던 바로 위 오빠의 “선수생활은 짧지만 지도자는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훨씬 보람 있는 일이니 너는 지도자의 길을 가라.”는 격려 한마디가 그를 50여 년간 체육지도자 외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후 상명여고 교사 시절 걸스카우트 지도자를 시작으로 모교 교수로 부임한 후, 레크리에이션협회 전문위원, 국민체조 제정위원장, 85년부터 93년까지 리듬체조세계선수권대회 단장을 맡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체조계의 산파역할을 훌륭히 하게 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김 동창은 30년 전 포기했던 올림픽의 꿈을 국제심판을 맡아 이루었다. 그 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부단장(여성 단장)과 1999년부터 3년간 IOC 여성체육위원(Women Sports Working Group)으로 기라성 같은 세계 체육계의 파워우먼들과 친교를 맺게 된다. 선수생활을 하며 승부근성을 키워온 김 동창은 여성이 항상 남성의 보조적 위치에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양대에서 스포츠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스포츠사회학회 일에 전념한 결과, 2000년 여성 최초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국제스포츠사회학회에서도 이사를 역임해 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현재 국민생활체육 전국체조연합회 회장으로 7330(일주일에 세 번씩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뜻) 운동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해마다 모교 동창의 날이면 김숙자 교수와 함께 하는 경쾌한 ‘몸풀기’를 동창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필자도 몇 년 전 올해의 이화인으로 무대 위에서 벌서고(?) 있다가 김 동창의 신나는 춤 동작에 이끌려 한복 입은 것도 잊어버리고 한바탕 뛰며 즐거워했던 경험이 생생하다. 지난 8월에는 YWCA 전국회원대회로 올림픽 핸드볼경기장을 가득 메운 4,500명의 회원들을 김동창 특유의 ‘몸풀기’로 매료시켜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이 70에 이렇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Customized 달란트 때문이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동창들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눔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며 산다면 그게 바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리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도저히 만 70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김동창의 젊음의 비결을 살짝 공개한다.

‘머리에는 지혜를,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열정을 담아, 두 팔로 나누고, 두 다리로 실천하며 기쁘게 살기’.

글 백수경 신방 79, 이화동창편집위원

숙명적 만남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

신기남

국회의원(15, 16, 17, 19대 서울 강서구갑)

전 한국도서관협회장, 변호사

아내인 김은주 동창은 정외과를 1981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 대학엘 들어가서 70년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으로서, 당시 이대생들은 남자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요즘말로 단연 짱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증언 1)

우리 서울대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선호의 대상이었다는 정도로 표현해 두자.

미팅도 데이트도 상대는 으레 이대생이었다.

결혼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고, 나중에 보니 실제로 주위 친구들 중 이대 출신 아님 상대와 결혼한 사람을 골라내는 게 훨씬 쉬웠다.

우리의 상상력이 그다지도 빈곤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다. 우린 연대생, 서강대생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했다. 그래서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신촌까지 나다니곤 했다. 단체로 교련복을 입고 수위 아저씨의 정문 저지를 뚫고(당시엔 함부로 출입이 불허될 때) 난입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은 미팅도 데이트도 아니었다. 해군에 입대한 것을 계기로 진해라는 먼 남쪽나라에서 살기 시작한 지 여려 해가 되어 거의 향토인이 되어갈 즈음, 친구의 약혼식에 초청받아 갔다가 만나게 된 그녀 역시 이대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일부러 학교를 골라서 마주칠 이유는 없는 것이었으니 그저 숙명적이라고나 할까?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어린 젊음이었었던 그 시절의 로망이 비로소 실현된 듯해서 일까?

돌이켜 보면 그녀와 마주친 그 사건이, 그 후 향토를 탈출하여 서울로 와서 변호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된 긴 여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여긴다.

이대출신 아내들은 남편 내조에 정통하다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중론이다.

나 역시 경험으로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한다.(중언 2)

이 아내가 없었다면(이런 가정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지만) 그 동안 거둔 가정적, 사회적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특히 정치인에게 아내의 내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정치인치고 공처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선거는 거의 전쟁판이기 때문에 온 가정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아내가 현장에서 뛰어 얻는 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반대로 아내가 욕을 먹으면 최소한 여성표는 물 건너간다.(그러면 선거는 진다)아내는 평소 행동거지는 물론이고 옷이나 장신구에서도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네 번 당선되고 한 번 떨어지며 험한 고비를 넘어오다 보니,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정신없이 귀한 세월을 흘려보냈단 말인가 하고 부부가 함께 한탄하는 때가 많다.

아내를 공연히 고생시킨 것 아닌가 해서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요즘은 아내에게 더 꼼짝 못한다.

근래에 들어 이대 출신 사회 명사들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다. 이제 이대는 과거시대의 전통적 분야였던 가정과 여성계를 넘어서 새롭게 사회 전체를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는 인상이다.

내가 머물렀던 법조계는 물론이고 지금 몸담고 있는 정치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눈부시다.

한때 헌법재판소장으로도 유력했던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나, 현재 5선 국회의원으로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을 보아도 그렇다.

요즘 이대는 단연 입시나 취업 전선의 초강자로 군림하고 있기도 하다.

겨레의 일꾼을 배출하는 인재양성의 근원지로서 인기와 명성을 드날리는 것이다. 모교인 서울대를 능가하는 이대의 실력을 곳곳에서 경탄 속에 확인하고 있다.(중언 3)

명문 이대의 미래에 영광 깃들라!

최근 들어 아내와 함께 이대에 놀러 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 학교 내에 문화시설을 운영하여 모두에게 활짝 개방하고 있는 덕분이다.

우린 교내에 새로 지은 초현대식 건물 안에 자리 잡은 독립영화관에서 예술영화를 감상하는 단골 고객이 되었다. 정문 부근 골목에 있는 분식집 '가미'에 들러서 아내가 대학생 시절부터 맛들였다는 주먹밥을 시켜 나눠 먹는다.

마치 대학시절부터 정다운 연인이었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낮익은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곤 한다.

수 없이 많은 선배들이 거쳐 간 그 거리요, 또 수 없는 후배들이 땀들 그 거리에서 짐짓 해맑은 청춘의 추억과 꿈 속에 묻혀보고 싶은 것일까?

마지막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누이도 실은 이대출신이라는 것이다.



한마음 한뜻, 땀과 눈물로 이룬 성경 번역

조 선 향 (생물 95), 박 요 섭 부부 선교사



늘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곳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성경번역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동역서신은 저희가 우까룸빠 센터에 있어서 직접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까룸빠 센터에서 바이탈이 진행되는 알로타우에 그리고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 소속된 여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선 경비행기 조종사, 배(콰디마)의 운영을 맡고 있는 매니저, 그리고 바이탈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또한 알로타우 SIL 센터를 운영하는 매니저, 이번에 새로 지은 훈련 센터를 총

감독하는 분 또한 선교사입니다. 또한 현지 번역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된 바이탈 모듈 22에는 11개 언어 종족이 참여했는데 섬들이 많은 저희 지역 특성상 참가자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 프로그램을 가지려면 저희 단체 배인 콰디마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일정이 빠듯함에도 매니저인 매킨토시와 현지인 선장 소키를 비롯한 여러 선원들의 수고로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듈부터는 바이탈 참가자들이 4월 말에 완공된 훈련 센터 건물에서 자고, 먹고, 전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 1년 만에 완공되었는데 총감독자인 존 보이어를 비롯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식과 헌금, 현지인 일꾼들의 수고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열왕기상, 하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현지인 번역자들이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바이탈 참가자들이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언어에 해박한 선임 선교사들이 다양한 성경을 비롯해 번역과 언어학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번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지역 언어 문법에 맞춰 쉬운 영어로 풀어 쓴 초벌 번역 자료 (Front Translation)를 만든 덕분입니다. 또한 바이탈 기간 중에는 각 언어 별로 저희와 같은 선교사 또는 현지인 멘토들이 번역을 돕고 있습니다.

바이탈에서는 성경 번역 뿐만 아니라, 자기 말로 된 책들을 통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빅북(Big Book)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나 자연, 문화, 그리고 성경 이야기들을 주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 문해사역 담당자는 자료를 모으고 이야기를 다듬고 함께 책을 만들 뿐 아니라 활용 교수법 또한 가르칩니다.

아쉽게도 그 동안 알로타우 지역센터 매니저로 수고했던 파(Farr) 가족이 지난 2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5월 말 떠났습니다. 현재 센터 매니저로 헌신할 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하루 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 이탈이 끝나고 우까룸빠에 올라온 뒤 카니누와 말 문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탈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14-15년 미니성경 (신약의 마가복음과 사도행적, 그리고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부분)출판을 위해 꼭 필요한 문법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초기 과정입니다.

언어학 컨설턴트인 아일린 개서웨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문법 분석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아일린 선교사님은 PNG독립 직전

인 1975년 2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37년간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신임 번역 선교사로서 이런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영광 중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곳 파푸아뉴기니를 기억하시고, 저희 부부와 카니누와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의 기도

9월 중순까지 카니누와어 문법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분석하는 동안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 아일린 개서웨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10월에는 바이탈 모듈 23이 알로타우에서 있습니다. 이번 모듈에는 구약의 시가서 일부 (욥기, 시편)을 번역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섬기는 스태프들과 참가자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리고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이탈 이후 11월 중 마을에 들어가 약 2달간 지내며 생활하게 됩니다. 오가는 이동 과정이 안전하도록, 마을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번역 팀과 함께 하게 될 성경번역과 저희들의 카니누와 언어습득에 진전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권 갱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연말에 있을 취업허가서(Work Permit) 갱신을 위해 먼저 여권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정상 필요한 서류들을 DHL로 보내고 받고 해야 합니다. 1달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 새 여권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양가의 홀로 계신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리고 양가의 형제자매 가정들이 바른 믿음 안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E-MAIL: j-j.park@sil.org.pg

후원: 외환은행 303-04-00018-853

예금주: 한국해외선교회

적은 돈으로 누린 즐거움들, 그리고 추억

양영옥 (도서관 73)

음.....

뭘 했지?

뭐가 재미있었지?

그날 오후가 떠오른다 정문을 나서고 있었다. 떼지어서, 마침 교수님이 마주오고 계셨다.

우리는 - 너댓명이었지? 아마- 꾸벅 인사를 했다. 교수님도 그저 웃고 지나치시고, 그 교수님 수업을 빼먹고 줄행랑을 치는 길이었는데.... 신촌역. 그때는 교외선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교외선, 기차. 지금은 생소하기만 한 ... 우리는 일영으로 갔다 철지난 피서 계곡.. 뭐가 좋은지 우리는 재잘, 깔깔거리며 뱅한 유원지를 이곳 저곳 쏘다녔다. 가을, 가을이었다. 아마 난 그때 검정 트렌치코트를 나름 멋있게 입었다고 생각하며 포즈까지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다리 난간 위에서, 한참을 쏘다니다가 우리는 모퉁이 가게로 갔다. 드르륵 유리창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께 라면을 청했다. 잘 익은 김치까지 인심 좋게 곁들여 내어준 라면. 아직까지 그리 맛나게 먹었던 라면은 없지 싶다.

거기까지다. 그날 추억은, 찾아보면 그 사진이 있을라나 몰라.

또 하나, 채플.

지금도 채플이 있었던 강당은 계단 높이 엄존하고 있다. 왜 그리 지루했었는지, 채플 수업은, 그래도 그때 기초가 되어 지금껏 예수를 쳐다보며 사는지 모르겠다.

김지하 오적 시를 기독교 수업시간에 듣고 놀라워했던 것. 시국이 어수선하고 수시로 데모가 있어 수업의 파행이 반복되었던 그 시절, 몇 년 만에 찾는 학교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재작년 새로 생긴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를 간다고 찾은 학교, 드넓은 운동장은 멋진 건축물로 채워져 있었다. 각종 편의 시설, 학생휴게실, 옷가게, 각종 상점에 강의실이 있는 그 공간은 생소하기만 했다

학교 안에 영화관이라.. 문화생활은 확실히 하겠구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날 본 태국 영화, 문제작이라고 했던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잉클분미. 관객의 반 정도는 학생들이 아니었나 싶다. 평소엔 관객의 30% 정도가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할인가격으로 각종 좋은 예술영화는 전부 섭렵할 수 있으니 부럽다 했으나 예상만큼 예술영화를 찾는 건 아니란다. 현생과 전생, 사람과 동물, 육체와 영혼을 오가며 엮은 이야기 전개와 화려한 화면을 보며 좀 심란해 했던 기

억이 난다. 그날 영화를 보고 새삼 자주 찾던 튀김집이 생각나 찾았으나 번잡스런 상점이 즐비할 뿐 그 집은 없었다.

두어 개 금방 튀긴 오징어를 먹던 그 쫄쫄한 즐거움이 새삼스레 그리워졌다. 아저씨, 다리 말고 통통한 살로 주세요. 적은 돈으로 누린 즐거움들.

멀리 자그마한 신촌역이 아닌 멀티플렉스 공룡 물이 보였다.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넘고 처진다. 길거리, 입울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현대 그리 행복지수가 높아진 건 아니지 싶다. 요즘의 학생들은, 더 허기져 하고 더 힘들어 하고 더 팍팍한 생활에 지쳐하고 대학의 여유보다 졸업 후의 민생고에 지레 겁먹고 긴장속에 학부를 보내는 요즘의 학생들이 아닌가 싶다. 그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학비는 조달됐었는데 요즘은 한 숨 늘어가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바보스테이지 생각도 난다. 이화서점 앞. 여학생을 기다리며 목이 빠진 채 서성이던 술한 남학생들 생각에 쿵쿵 웃음이 비어져 나온다. 이제는 사라진 양장점. 그린하우스가 아직 있다. 잘 모르겠다.

1969년에서 2012년 43년. '인생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훌쩍 지나간 시간. 긴 세월. 직장생활, 결

혼, 육아, 아이들 결혼, 부모님 여의고 손주들, 홀로서기, 노년..... 이제 노년. 여기까지 왔다. 철들어 하루하루가 귀하고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요즘. 지금은 파스한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기도하며 늘어감을 다소곳이 받아들이고 있다. 감퇴하는 기억력. 줄어드는 모든 욕망,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나요. 지금 내 안에는 누가 있나요. 이웃을 옆 사람을 또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걱정하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되뇌일 나이가 된 것이다.

젊음은 속절없이 휘리릭 지나가고 이젠 봄을 기다릴 수 있어 겨울이 소중하다는 심정으로 죽음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곱게 늙어가기만 바라고 있다.

줄행랑 동지들, 늦둥이를 본 친구, 현빈과 아들이 해병대에 같이 입대했다고 하는... 남 편 따라 창원에 동지를 틀고 서울나들이 좀체 안하는 친구, 두 아들 미국에 멀리 있고 이젠 일에서 벗어난 남편 밥을 열심히 해주며 늦 재미를 보는 친구, 아들 딸 시집 장가 안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친구, 멀리 호주에서 간간히 소식 전하는 친구. 아들 딸 손주 4명 손주 바보가 된 나.....

큰일들 했네 다들.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사랑아, 우리를 몰아 어디로 가려느냐

정 끝 별

국문 87

시인, 명지대 교수

1988년 「문학사상」 신인발굴에 시 당선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에 당선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 「흰 책」, 「삼천갑자 복사빛」,

「와락」,

시론평론집

「패러디 시학」, 「천 개의 혀를 가진 시의 언어」,

「오류의 노래」, 「파이의 시학」

시선해설집

「그리운 건 언제나 문득 온다」, 「밥」,

「어느 가슴엔 들시가 꽃피지 않으랴」, 등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정현종 시인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사랑은 시처럼 온
다. 시처럼 막 밀려온다. 저 꽃들처럼, 저
단풍처럼, 저 바람처럼, 저 물결처럼, 그
리고 보이지 않는 저 음악처럼 온다. 푸
르른 손짓으로, 세상 모든 물질을 통과하
는 눈빛으로, 웃고 있는 울음으로, 온몸
을 몰들이는 자연으로 밀려온다.

잠결에도 막 밀려오는 것이어서, 잠의
품속에서도 사랑은 부화하는 것이고, 굳
이 언어의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자체로
시인 것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모두가
한 꽃송이다. 어디 꽃뿐이겠는가. 나무이
고 산이고 강이고 바다이고 햇빛이고 바
람이고 구두이고 의자이다.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여 사랑에 빠진 너와 나는 이미 한 편
의 시다. 저 하나로 완성이고 그 자체로
발견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일이란 세
상을 숨 쉬는 일이고 세상을 모시는 일이
고 세상에 언어의 옷을 입혀주는 일이 아
닐까.

무작정 밀려오는 것이기에 사랑은 무작
정 끌리는 것이다.

무작정 끌리도록 만드는 그 매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비밀스럽고 열정적인 자석과 같은 감정임은 분명하다. 무작정,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결함조차도 미덕으로 보이는 눈땀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놀랄 만큼 아름답지도, 홀릴 듯이 매혹적이지도 않다.

그저 수수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에 이끌린 눈에는 활짝 핀 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은 눈이 머는 일이고, 우리는 현실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리라.

하여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다. 그 열망은 생명처럼 자란다. 그 열망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고, 충족되는 순간 뜻하지 않은 새로운 결핍에 눈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늘 허기다. 허기진 사랑은 압도적이면서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만들곤 한다. 육체적 열망이 그 허기를 채워주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더욱 허기지게도 만든다.

그 열망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건만, 그의 열망의 대상은 늘 ‘내 것이 아닌’ 우리의 외부에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의 열망으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매혹적인 만큼 사랑은 변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상반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하는 사랑의 불합리성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감정이 불합리하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그 불합리한 감정이 이성의 힘에 제어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서로의 욕망이나 요구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을 경험하는 일과 타인을 경험하는 일이 똑같은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채집하듯 알아가는 수밖에 없다. 불안은 바로 자신의 내적인 삶과 타인의 경험 사이에서 느끼는 균열의 단애(斷崖)로부터 연유한다. 사랑이 이 불안과 균열을 견뎌내지 못할 때, 사랑은 사랑이기를 그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균열을, 사랑의 어두운 반쪽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사랑이란 인생에서 맞볼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자 광기 어린 일이다라고 일갈했던 이가 스타달이었던가. 사랑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단순한 본능 위에 더없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구축물을 쌓아올린 불가사의한 것임에도, ‘그대’를 최고로 감식한다는 것, ‘그대’를 최고로

맛본다는 것, 그리하여 ‘그대’의 자존심을 최고로 지켜주면서 ‘그대’를 최고의 오르가즘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야말로 사랑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의가 아닐까. 이 오르가즘이 육체적인 절정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일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은 권력이다. 그것도 절대적인!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권력이기를 꿈꾸어 본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과 신비스러운 사랑의 메시지들로 이 세상을 꽉 채울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이다.

“내 사랑 내 귀에 속삭였네”/

“사랑은 나의 권력”/

나는 내 사랑의 귀에 속삭이네/

“내 권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현종, ‘사랑은 나의 권력 -페테르부르크 시편 2’)

그러니 사랑이여, 진정 우리의 권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소리 없는 메시지 속에 잠겨 있다.

개인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행복이란, 무소부재(無所不在)하는 이 은밀한 사랑의 힘과 메시지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모든 재난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며, 사랑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축복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삶의 권력이기에…… 그러기에 나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지 않던가.

사립을 조금 열었을 뿐인데,

그늘에 잠시 기대앉았을 뿐인데,

너의

숫된 졸참마음 안에서 일어난 불이

제 몸을 굴뚝 삼아

가지를 불쏘시개 삼아

타고 있다

저 떡갈에게로

저 때죽에게로

저 당단풍에게로

불타고 있다

저 내장의 등성이 너머로

저 한라바다 너머로

이 화염으로

사랑아, 나를 몰아 어디로 가려느냐 줄시, 「상강」전문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출품작 전시회 성황리에 개최



충동창회는 지난 5월 12일에 개최한 바 있는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출품작 전시회를 8월 17일~22일까지 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층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이화동창과 가족, 충동창회 임원 및 심사위원 최은경(조소 79) 교수 등 약 1백 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종남 충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모교를 찾은 동창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행사로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방문하는 이화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22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400여 명의 이화가족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행사로 대회 참가자 전체 어린이 작품들 전시한 뜻 깊고도 귀중한 전시회였다. 유치부 및 저학년 어린이들 작품 속에 표현된 이화 캠퍼스 곳곳의 아름다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색다른 미학을 이화 동창들에게 선물하였고 전시회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충동창회가 금년에 처음 마련한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자녀 양육으로 동창회 참여가 저조한 젊은 동창들이 자녀와 함께 모교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고 격려하고 더불어 이화가족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기획된 행사이다.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에 후원금 전달

9월 13일 총동창회는 〈이화여대 총동창회와 함께 하는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는 베트남 전쟁 시 베트남에 버려진 한국계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로서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 500만 원은 지난 5월 17일 총동창회가 모교 교정에서 열었던 ‘큰바자회’ 수익금의 일부이다.

정기임원회

9월 13일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제 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더불어 11월 26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오랫동안 진지한 논의를 해온 총동창회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총동창회 조기 제작

총동창회에서 동창들을 위한 조기를 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조기는 필요한 동창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동창임을 확인받고 대여하면 된다.

총동창회 사무실 / 02-3277-3386, 3387



제 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추천 후보자 명단

9월 임원회에서는 11월 26일(월) '이화인의 밤' 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심사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당연직 위원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

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

박정임(식영 73) 총동창회 문화부장

양옥경(영문 82) 모교 대외협력처장

김미현(국문 88) 모교 홍보담당 (기획처홍보부처장)

선출위원

박유나(도예 81) 총동창회 부회장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위성숙(약학 73) 총동창회 지역부장

김영주(유교 71) 사범대학 동창회장

제8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추천 후보자

(졸업 연도 순)



서정자(법학 63)

시애틀 라디오 한국 사장. 전 세계 최초로 해외 한국어 방송 시작, 48년간 미국 속에 한국어와 문화 전수에 힘을 기울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

고 이화인의 명예를 올림.



안혜초(영문 65)

이화동창 문인회 고문. 언론, 문화 예술계에 큰 빛을 뿌린 지도자. 수많은 시집, 산문집들을 출간하여 이화를 빛내고 장애 문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

과 관심으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함.



최재명(사복 66)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32년간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산파역 담당.

아동, 청소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고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옴.



유중근(영문 67)

대한적십자사 총재. 1998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을 시
작하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원회 위원장, 부총재 등의 중
책을 맡으며 탁월한 능력과 투

철한 봉사 정신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적십자사
106년 사상 최초 여성총재로 추대됨.



김영희(약학 68)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이사
장. 시카고 교민들 손으로 최
초로 건립된 문화회관 탄생에
많은 노력을 함. 다양한 분야
에서 시카고 교민들을 위하여

진.선.미. 나눔, 섬김 사랑을 17년간 실천



조중신(국문 74)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
터 소장. 열악한 상담 환경에
서 20여 년간 성폭력피해의
고통을 힘들어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인

권신장을 위해 일해옴



송경애(경영 84)

SM C&C 사장.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녀소
사이어터의 첫번째 여성회원.

2011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영웅 48인(한국인 4명)에

선정. 금전적 기부만이 아닌생활 속의 기부와 봉사
를 실천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세를 보여줌.

역대수상자

1회 2005년

박진숙(심리 58) 부산매실보육원 원장

2회 2006년

김행자(불문 64) 광주 로렌시아의집 원장

3회 2007년

방숙자(정외 56)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4회 2008년

윤애리나(간호 59) 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5회 2009년

박양미(제약 82) 아프리카 선교사

6회 2010년

강선희(법학 61)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원봉사

7회 2011년

신경희(특교 84) 네팔선교사

선교부 소식

2012 여름 단기선교학생 환송 예배

지난 6월 26일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2012 여름 단기선교학생 환송 예배>를 이대 후문에 위치한 다락방 전도협회 3층에서 개최하였다.

지연숙(사회82)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 노현숙(사생71) 사범대 선교부장의 기도, 조종남(의학75)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천사랑(장미86) 선교사의 권면에 이어 이찬우 선교사(송용희/유교 86 부군)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 아래 '선교'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어야 하며 건물을 짓는 것 등의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는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칫 선교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그저 내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고 또한 잘해보고 싶은 강박관념들이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혼자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누가 갈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선교'에 대한 요지를 전달하였다.

예배 후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나누며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선교부 선배, 선교사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선배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영문과, 기독교학과 선교부가 마련한 선물과 사대동창회, 범대동창회장 등이 기증한 책 등을 전달받았다. 총동창회 선교부도 헌금을 전달하였다.



선교사의 날 행사

단기선교학생 환송 예배가 있었던 6월 26일 오후에는 해외로 파송되었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였거나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초청 격려하는 모임이 있었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매주 화요일 마다 모여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해마다 이들을 초청, 위로, 격려하는 선교사의 날로 섬기고 있다. 이날 안윤정 동창(독문 69, 앙스모드 대표)께서 기증한 총 30 벌의 정장을 전달하며 기쁨을 같이 하였다.

참석 선교사 명단

염승혜, 홍수정(허용구), 천사랑, 김금사, 이효정, 유병국, 문신희, 민명홍, 박혜원, 최하나, 안형숙, 이재진, 송용희(이찬우), 김미나, 유덕희, 왕승희



이화동창 선교부 가을 수련회

9월 12일 이화동창 선교부 수련회가 있었다.

약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는 오전 10시부터 찬양을 시작으로 양현혜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의 ‘이화선교의 어제와 오늘과 내



일’에 대한 강의에 이어 점심식사 후 선교부원들이 4팀으로 나뉘어 교내 대학교회, 다락방, 중장당, 한우리 기숙사, 역사관, 팔복동산, 공대, 사대, 애다(법대 기도실), 학생문화관, ECC 등 교내를 돌면서 각처에 있는 기도실에서 ‘이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잘 이어받아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 나라의 참 지도자가 되기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 후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팀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선교사 명단

송용은(사회생활 80) 하와이 열방대학, 박종국(장은혜 선교사 영어교육 85) 에티오피아, 홍수정(중문 93) 인도네시아 찰라따까, 이효정(유아교육 79) 몽골(현재 안식), 유병국(간호 75)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저개발국가, 안형숙(정치외교 86) 미얀마, 정보영(사회 85) 파푸아뉴기니, 왕승희(피아노 73) 우크라이나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간호과학대학

회장 김진향(73)

정기총회에서 졸업 50주년 동창 재상봉 환영회

5월 31일 헬렌관 116호에서 제51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4회, 24회 동창 재상봉 행사가 열렸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4회 동창 17명과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24회 동창 20명이 재상봉 행사에 참석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재상봉을 기념하여 김진향동창회장과 신경림 교수, 강윤희 간호학부 부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동창들은 감사의 뜻으로 간호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탁하였고, '우리들의 학창시절'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슬라이드를 감상하였다.



법과대학

회장 박관순(법학 72)

법학관 보수건축 후원자 초청 감사 모임

9월 24일 법학관 1층 로비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후원자 초청 감사 모임이 개최되었다. 건축된 지 25년이 되어 노후화된 법학관을 보수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모금한 '법학발전기금' 기부자 및 법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애써준 교내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김선욱 총장, 신인령 전 총장을 비롯하여 박관순 법과대학동창회장, 이정옥 이영희연합회 회

장,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신경식 기획처장 외 본부 관련 처장 및 법학발전기금 기부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감사모임은 전효숙 법학전문대학원원장의 인사말, 김선욱 총장의 축사, 송덕수 전임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법학발전기금 모금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모임 후 참석자들은 법학관을 시찰하고, 법학관 중정에 마련된 다과를 함께 하였다.

이화법조인, 학부모, 법전원 교수, 법과대학 동창, 교내 직원 선생님들이 주로 참여한 '법학발전

기금' 모금에는 2012. 9. 20. 현재 총 183명(단체 포함)이 812,974,915원을 약정하고, 720,623,815원을 납입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은 후원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동판에 이름을 새겨 법학관 1층 로비에 부착하였다.

법학관은 리모델링으로 계단식 강의실을 확충하고, 모의법정을 정비하였으며, 법학관 로비와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세련된 모습과 강의와 연구에 더욱 적합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사범대학

회장 김영주(유교 71)

재학생에게 2학기 장학금 전달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학교육과 4학년 이새미 학생에게 사범대학 동창회 장학금(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

7월14일 밀레니엄 힐튼에서 사범대학 동창회 회의를 가졌다. 방학 중이어서 많은 분이 참석하여 점심 식사 후에 사범대학 발전을 위한 진지한 회의를 했고 특별히 노선숙 사범대학 학장도 참석하여 사범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임정희(가관 79)

아령회 문화의 밤 개최

8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일하는 동창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으로 기획하여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미리 터어키 특별전을 관람하거나 상설전을 둘러보며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다.





가정과 62년도 졸업 동창의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지난 5월 총동창회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아령회에서 마련한 식사와 함께 선후배간 유쾌한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임정희 회장이 올해 계획된 월별 행사와 새로 선임한 박정희(가정 62), 임재영(의직 77), 박경임(식영 73) 고문과 현 임원진을 소개하였다.

최인순(의직 79) 부회장이자 11월 '아령인의 빛나는 밤' 행사 추진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행사 취지와 참여방법 등을 홍보하였다.

선배들은 후배들의 왕성한 활동을 치하하며 그 자리에서 아령펀드가입으로 아령회 후원에 앞장섰다.

아령회 1부 행사 후 회화실로 이동하여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의 보존과 표현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듣고 달빛 환한 광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작별을 아쉬워하며 9월 25일 아령당에서 열릴 정기 아령회를 기약하였다.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6월 정기 임원회

6월 19일 타워팰리스 30층 연회장에서 정기임원회를 개최하였다.

32명이 참석한 이날 임원회에서 회장 인사 및 활동 보고 후, 이경림 약대학장의 학교소식을 전해주었다. 또한 문화부장이 동창의 날에 총동창회가 개최한 합창제에서 '사랑상'을 수상했음을 보고하였으며 약사부장은 약대 소식지 원고 부탁을 하며 약대 소식지가 동창의 날 회보 정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주홍장학회의 이정자 위원장은 특별장학위원이 늘어나기를 부탁하였고 김순영 약대 건축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가나다순으로 게재

경영학과

회장 이봉학(81)

‘홈커밍데이’ 행사 및 경영대학 동창회장 이, 취임식

6월 7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경영학과 ‘홈커밍데이’와 ‘총동창의 밤’ 행사가 열렸다. 박경희 경영대학 학장을 비롯하여 전, 현직 교수 및 동창,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올해로 졸업 25주년을 맞는 20기 동창들의 모교 방문을 축하해주었다. 이봉학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재학생들에게 동창회장학증서를 수여하였고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은 21기 황영미(한국파자헛 상무) 동창이, ‘이화경영동문상’은 20기 김민선(협성대 교수) 동창이 수상하였다. 특히 은퇴 교수인 이건희, 홍부길, 박재홍 교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정중자 동창회장에 이어 임혜란 동창이 경영대학 신임 동창회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참석 동창들은 이를 축하하고 경영대학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교육학과

회장 정미경(79)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모임 참석

이화(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동창 및 재학생 모두의 모임인 이화교육네트워크(대표/ 김은산, 교육59)의 6월, 7월 정기모임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학교폭력과 우리 삶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앞으로 이화교육네트워크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재능 발굴 및 나눔 활동,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사업 등으로 동창들의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기모임은 2월, 8월을 제외하고 매달 첫 토요일 교내에서 개최된다.

국제사무학과

회장 박경임(84)

이비회 기대표 및 임원 모임 가져

7월 6일 더 리버 사이드 호텔 중식당 따똥에서 “2012 이비회 기대표 모임”을 열었다. 박경임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기대표들이 모여 동창들의 소식을 나누고 앞으로의 동창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7월 26일에는 서울 파인애플 센터 내 불고기 브라더스에서 하반기 동창회 임원 모임을 가졌다. 정덕임 신임 총무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동창회 행



사의 진행 방향과 업무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학과

회장 이해옥(74)

정기 간사모임

6월 28일 성북동 푸드카페(구 곰의 집)에서 6월 사학과 정기 간사모임을 가졌다.

사회복지학과

회장 박현경(75)

학과 재설립 축하 홈커밍데이 행사

동창회는 모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과 함께 5월 17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화사회복지학과 재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로 박보희 한국사회복지연구원장, 동창회장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이사, 모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미혜 원장 등을 비롯한 300 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

냈다. 자랑스러운 동창을 소개하는 동영상 및 브라스밴드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시작한 행사는 전종설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청자 서대문장애인복지관장의 기도, 김미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및 박현경 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으며, 김선옥 모교 총장의 격려사, 양승태 사회과학대학장의 축하인사로 더욱 빛났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우석재단 김혜옥 동창과 2012년 박사과정 졸업자인 고(故) 김은영 동창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시상하였으며, 박현경 동창회장은 사회복지학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사회복지에 뜻을 둔 후배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학과는 194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었고 2006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인해 학부가 폐지되었으나 2013년에 재설립될 예정이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74)

하반기 활동을 위한 임원회의

6월 18일 김동철, 안광식, 윤희중 명예교수와 전 회장단이 모교 ECC 케세이호에서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 모임에서 김동철 명예교수는 1960년 학과 창설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고 이해창 교수의 탄생 100주년인 2016년 3월에 추모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동창들과의 모임 때마다 인생 선배로서 덕담을 들려주는 윤희중 명예교수는 이날도 “모든 것은 심은대로 거둔다”며 좋은 마음 바탕에 좋은 생각을 심기를 권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경순(67), 김미령(69), 문은희(72) 전 회장과 박화숙 회장, 우연옥(75) 부회장이 함께 했다. 한편 9월 4일 하반기 활동을 위한 임원 회의를 가졌다.

영어영문학과

회장 김원정(75)

신·구 임원 교체식

6월 14일 동창회 영학회의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었다. 그동안 수고한 김창영(74) 전임 회장 및 임원진의 봉사에 감사하며 신임 회장단에 회장 김원정, 부회장 이정숙(77) 동창을 선임하였다. 새 임원진은 앞으로 2년 동안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영학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신임 회장단은 첫 번째 사업



으로 10월 23일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을 강사로 하여 영학회 추계강좌를 열기로 하였다.

조소과

회장 심인자(74)

조소과, 이화조각회 통합 기념 전시 기획

7월 14일 인사동에서 조소과 동창회, 이화조각회 운영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소과 동창회와 이화조각회가 통합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을 심사하여 평면작업을 다양하고 새롭게 보여주는 작업과 설치작업을 주로 하는 5명의 졸업생이 입회하게 되어 조각회에서 더욱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운영위원 모임은 조소과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지회

회장 김정순(간호 75)

야유회와 정기총회 및 오렌지 카운티 배꽃모임

6월 8일, 10여 명의 동창들이 야유회를 겸해 Huntington Library를 다녀왔다. 동창들은 Desert Garden과 Chinese Garden 등을 돌아보며 아름답고 신기한 꽃과 나무들에 감탄했고 미술관에서는 진기한 예술품들을 감상했다. 유난히 청명한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장미들,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었다. 모처럼 선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6월 16일, 간호대 연례행사인 야유회와 정기총회가 30여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서공원에서 있었다. 현 회장인 김혜숙(간호 72) 동창을 유임시키기로 하였고, 정기 모임으로 내년 1월 선후배와의 오찬 모임과 6월 야유회를 갖기로 하였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적립은 일정금액이 되

기까지 계속 예치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2일 과 8월 7일, 부에나 팍 사간 카페에서 제 4회, 제 5회 임원회가 있었다. 김정순 회장 및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9월 골프대회, 10월 건강세미나, 11월 국제재단 회의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12월 연말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남가주 동창 회관 마련, 동창 주소 Information Update, 남가주 동창 60년사 편찬 등의 사업 계획을 위한 준비 위원을 구성했다. 6월 30일, Garden Grove에 있는 Asel Beauty College에서 배꽃모임이 있었다. 김정순 회장, 장경혜 부회장 및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히 배꽃모임에서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지에 보낼 후원금(1,400 달러)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선교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24인승 학교버스 구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사학 66)

정기총회 열고 새 임원단 선출

3월 13일에 맨해튼 소재 한국회(법학 76) 동창의 SM 아카데미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2년 동안 동창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유덕향 회장의 이임과 새로 선출된 박문순 회장 및 새 임원진의 인사가 있었고 박숙희(신방 86) 동창의 웹사이트

트 설명회를 들으면서 친교의 시간 또한 가졌다.

5월 7일 두번의 임원간담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새 임원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기모임을 이끌어 가며 회비사용의 확장과 장학금지급을 위한 광고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송미숙(사회 89)동창의 흥겨운 댄스로 모임을 마감했다.

6월 16일엔 정기모임의 일환으로 옥외 바비큐 모임이 김기령(영문 81) 동창의 자택에서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함께 1950년도에서 2000년도 졸업생까지 다양한 세대의 선후배가 모여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훈훈한 동창 모임의 장을 펼쳤다.

뉴질랜드지회

회장 문정아(제약 82)

정기동창회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사

7월 11일 제 45회 정기 동창회가 rosedale conference room에서 20여명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이웃돕기와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성황리에 열었으며, 납킨 아트를 배워보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런던지회

회장 문현수(체육 70)

주영 대사관 초청 오찬 후 콘서트 가저

6월 28일 주영대사 관저에서 송정원(영문 81) 대사 부인이 동창들을 오찬에 초대하여 점심을 한 다음 즉흥 콘서트를 가졌다. 참석한 동창들은 대사관저의 주방장으로부터 한국요리 특강을 들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멜버른지회

회장 양수경(경영 91)

중반기 모임 가지고 다양한 논의



7월 23일 시내의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중반기 모임을 가졌다. 정혜원(영문 79), 이애숙(피아노 81), 안수산(영문 84), 하은정(수학 87), 박성혜(기독 95), 박혜진(독문 97), 박해주(교육공학 99), 신은미(사회 99), 정은재(실내디자인 01) 동창 등이 참석하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다음 모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하였다.



보스톤지회

회장 김희선(법학 77)

월례회 모임과 보스톤 총회 뒷모임 가져

지난 6월에 국제재단이사장인 김경애(의학 70) 동창 자택에서 월례회 모임이 있었다. 동창들이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하여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오찬을 즐길 수 있었고 오찬 후 정선진(법학 93) 변호사와 윌리엄 한 변호사가 동창들의 법률에 관한 질문에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김경애 이사장의 건강에 관한 강의도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시간이었다.

이 날 텍사스로 이사할 배한원(도서관 91) 동창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아쉬움을 나누었으며 11월 맨큐버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광고하였다.

한편 8월 28일에는 지난 보스톤 총회 후에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갖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행

하기 위해 아름다운 하늘과 보스톤 시내가 멋있게 조화가 되는 Prudential Building 52층 Top of the Hub Restaurant에서 동창들이 모였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의 섭섭함이 있었지만 맛있는 음식과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흐뭇한 동창들과 함께 이회를 위해 샴페인으로 건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후 50층에서 내려다 본 잘 정돈되고 조화를 이룬 보스톤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다.

시애틀지회

회장 박미경(국문 71)

지역사회 기여할 다양한 장학기금 논의

6월 해 남식당에서 14명의 동창들이 모여 세 가지 장학기금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국제재단의 시애틀 장학기금을 앞으로 더 많이 적립하고, 시애틀 로컬장학금을 새로이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자는 안건과 선배라면 장학금에 동창들이 많이 동참하여 후배들을 돕자는 토의가 있었다. 한편 동창들의 친목 모임인 골프부, 도서부, 등산부가 활발한 모임을 가지며 동창들 간의 친목을 나누고 있다. 7월 12일에는 가족 동반으로 20명이 하운에 총무의 아름다운 전원 주택을 방문하여 바베큐 오찬을 즐기고, 체리농장에서 탐스럽게 익은 체리를 한 박스씩 따며 농가 체험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6일 등산부는 레들스낙마운
튼 정상에 오른 후 하산 길에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8월 25일 안정숙 이사님의 아름다운 비치하우스에
서 42명의 동창과 가족이 모여 즐거운 피크닉을 가
졌다. 피크닉 비용을 전액 후원한 김예자 고문과
함께 단합된 시애틀 동창들의 지회 사랑을 더욱느
끼게 해 주는 피크닉이었다.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마
음껏 웃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또한 지난 6월
에 토의한 바 있는 시애틀 로컬장학금을 제공하자
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시카고지회

회장 송복진(영문 73)

2년간 봉사할 새 회장단 취임

7월 1일부터 2년간 봉사할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

들이 취임했다. 회장 송복진(영문 73), 총무 김진희
(정외 87), 회계 김희영(음악 75), 서기 송희영(행정
85), 서부 부회장 홍순희(미술 72), 서북부 부회장
이근선(음악 82), 북부 부회장 홍경련(약학 82), 남
부 부회장 김윤금(간호 74), 시카고 부회장 김은경
(행정 85), 위스컨신 부회장 김유옥(가정 70), 인디
아나 부회장 유승희(국문 73), 친교부 구은서(간
호 73), 봉사부 이정화(수확 81), 박계춘(외국어
76), 홍보부 민창순(간호 84), 출판부 성유나(영문
79) 동창 등이 2년 동안 수고하게 되었다. 시카고



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00여명의 동창 가운데 주소록에 등록되지 않은 300여 명의 동창들을 찾기 위해 회장단이 7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큰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8월 12일에는 시카고를 방문한 한명숙(불문 67) 국회의원(19대)과 함께 구광자 이사장(가정 67)과 여러 동창들이 한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었다. 2013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 근교, Northbrook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열릴 2013년 북미주 이대 동창 연례 총회를 위해 준비위원들이 여러 번 모였고 8월 27일에 다시 만나 총회 날짜 및 장소와 프로그램 개요 등을 결정했다.

아틀란타지회

회장 조성숙(가정 64)

팔순을 맞은 성정순 교수의 축하연

호우와 일기 불순으로 여름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 8월 12일 팔순을 맞은 성정순 교수



의 축하연을 조출하게 열었다. 이화 역사의 산 증인이며 지회 동창들의 든든하고 푸근한 만연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성 교수의 팔순 잔치에 참석한 동창들은 기쁨과 덕담으로 오랜만의 모임을 즐거워 하였다.

독일 · 오스트리아지회

회장 이순애(체육80)

재학생과 함께한 이화의 밤 행사

함부르크 동창회를 주축으로 이화의 재학생들이 각국의 선진 기업 및 시설, 문화를 탐방하는 EGI프로그램으로 방문한 재학생 후배 36명과 함께 즐거운 이화의 밤을 가졌다. 전춘희 전 회장을 비롯하여, 김군희, 소지원, 이정아, 고맹임, 정윤지 동창 등이 재학생들과 함께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지난 7월엔 자브리켄 바실리카에서 이화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이화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바실리카가 공연 시작 전부터 만석이었고, 공연 후에 이화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공연에 현지인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김선옥 총장과 채문경 음대 학장을 비롯한 음악대학의 교수들과 학교 교직원들이 자브리켄의 이화 오케스트라 공연에 함께 해주었고, 이-독 동창회에서 도 이순애, 양명숙, 김인희, 이승진, 권채란, 한아름, 성은숙 동창이 참석하였다.



일본지회

회장 정태영(생미 69)

한·일 교류 미술 전시회에 출품한 동창 축하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이 주최하고 서울시 시의회와 교육청이 후원한 한·일 미술작품 교류전에 정태영 지회장과 동경한국학교 중고등부 교감인 고정희 동창 등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지난 8월 7일~10일까지 주일한국대사관 동경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진 후 8월 27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 광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져 한·일 간 미술교류전에 큰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교육문화원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은 정 지회장은 일본미술전 대회장으로서 개막식에서 대표 인사를 하였고 고 동창은 예총 회장상을 받았다.

해외지회에서 보내온 편지

파라림픽 깃발아래 이화의 향기가

문현수 (체육 70, 런던 지회장)

지난 8월 29일부터 개최한 제 14회 런던 하계 파라림픽이 1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9월 9일 폐막식에서 입장식 페레이드가 끝나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성취상(Achievement Award)’ 수여식이었다. 국제 장애인 위원회가 선정한 남,녀 선수 한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수상 선수들은 장애의 몸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하여 꿈을 이루어 올림픽 정신을 고양시켰고 나아가서 고국의 장애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져다주고 꿈을 갖게 했다. 남자 수상 선수는 뇌성마비를 앓았던 마이클 맥킬로프, 아일랜드의 중거리 육상 선수이고 여자는 휠체어를 탄 척주장애자인 투포환과 투창 선수 메리 자카요로 케냐에서 온 선수였다.

이 성취상은 88 서울 올림픽 당시 이화동창인 황연대 선배의 신체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번 올림픽에도 직접 오셔서 상을 주셨다. 올림픽 상중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것은 ‘황연대 성취상’ 하나 뿐이다. 시상식 동안 주 경기장의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황연대 선배의 지난 발차취 소개에 나는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에서 뒀던 황선배의 밝고 인자하신 얼굴은 천사같이 보였고 올림픽 성화속에 이화의 향기를 가득 품어내게 하였다.

소 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올림픽 선수로 나섰고 지금도 후원자인 황 선배의 수여식이 끝나고 폐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필립 크레브 경 부부와 일본을 포함한 각국 위원들이 찾아와 그 분을 경애하는 모습은 참다운 올림픽 정신으로 아름다운 전경이었다.

총 동창회 조종남 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런던 체류 시 황 선배와 함께 하게 된 나는 그 분이 런던 공항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다정다감한 성품 덕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연니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불편한 몸과 시차를 적응할 시간도 없는 분주한 일정에도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고 공식 모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러웠다. 파라림픽 주최 측에서 황 선배의 좌석을 로열 복스에 배정하여 여왕의 사촌인 마이클 왕자(Prince Michael of Kent) 부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 역시 나를 기쁘게 했다. 영국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다른 나라와 달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월등하며 본 올림픽 티켓트는 팔리지 않아 빈 좌석이 많았다는데 장애인 올림픽은 얼마 전부터 완전 매진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정도로 파라림픽은 일반 올림픽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육체의 제한적 장애를 갖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성적과 관계없이 그들 인생의 승리자의 함성이라는 것이다. 이번 파라림픽을 훌륭하게 치룬 영국국민 의식과 승패의 관계 없이 모든 선수에게 격려를 보내는 마음 자원봉사자들 따뜻한 사랑과 미소는 이번 참가한 204 국가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장애인 올림픽의 발상지인 영국에서의 열기가 대단하여 이 기간중 하루 종일 뉴스 미디어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파라림픽 이야기여서 ‘황연대 성취상’을 영국 선수에게 주지 않나 예상했으나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공정성을 국제장애인 위원들이 보여주어 아프리카 선수 ‘메리 자카요’를 선정해 칭찬을 받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황연대 성취상’ 수여식을 보면서 우리 이화 교가 마지막 구절이 강하게 떠올랐다.

“이화 이화 우리 이화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화”

자카르타지회

회장 민경례(불문 76)

정기 동창회와 회갑 동창 축하연

모교 개교 기념일인 지난 5월 31일 총동창회에서 개최한 동창회보 경연대회에서 자카르타지회 동창회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복 81)

세계를 빛낸 한민족 여성문화예술인상 수상

6월 15일 세계 한민족 여성 재단(KOWINNER)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제3회 국제컨벤션에서 홍콩에 거주하는 정도경, 문은명(미술 89) 동창 등 엄선한 25인에게 '세계여성 문화예술인 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간식도 함께 거행했다.

'세계를 빛낸 여성 문화예술인 상'은 세계 속에서 한인의 긍지를 드높인 우수 여성 문화예술인 선발



을 통해 한인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공한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성공 비결을 공유함으로써 한민족 여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차세대에 길잡이가 되고자 제정된 것이다. 25명의 수상자 가운데 홍콩 사회에서 한국어를 통한 한국문화 전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정도경 회장과 한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은명 동창이 홍콩지역 수상자로 나란히 선정되었다. 주방용품 제조수출업체인 Silver Star Cookware의 대표이사인 정 회장은 야간에 '홍콩 침례대학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사'로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십수년째 해오고 있으며 '문갤러리 대표'인 문 동창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우수 작가들의 미술품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다.



201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1,726명의 이화인, 세상 향해 첫 걸음

모교는 8월 31일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총 1,726명(학사 903명, 석사 721명, 박사 1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선욱 총장은 학위 수여식사를 통해 "이화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나눔과 섬김, 배려와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여러분을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인격, 포용력과 책임감을 지닌 참된 지성인으로 길러냈다 자부한다"면서 "오늘 졸업식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매듭으로, 여러분이 지난 4년 내지 10여 년 동안 이

화에서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의 영예를 안은 이화인 중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영주(환경공학·08학번)씨도 포함됐으며 졸업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하였다. 이외에도 네팔, 베트남, 태국, 몽골 출신인 총 4명의 EGPP 장학생(석사학위 3명, 박사학위 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이화글로벌파트



너십프로그램)는 모교가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으로 육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날 졸업식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가 됐다. 모교 행사가 외부에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서나 졸업식을 함께 함으로써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은 물론 지방과 해외에 있는 졸업생 가족들이 학우들과 자녀들의 졸업을 함께 축하했다.

2012중앙일보 대학평가 '과학이화'로 우뚝 서다

물리학 · 수학 · 환경공학 · 사회학 '최상위'

'과학 이화'의 명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본교 물리학 · 수학 · 환경공학 4개 학과가 단독 '최상위' 등급에 랭크됐다. 평가 대상인 전국 122개 4년제 대학 중

물리학 · 수학 · 환경공학 전공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으로는 본교가 유일하다. 사회학도 '최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학 · 식품영양학 · 통계학 등 3개 학과가 상위 등급을 받으며, 본교는 전통적으로 강한 인문 · 사회계열에 더해 자연 · 이공계열의 저력을 과시하며 명문 종합대학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특히 자연 · 이공계열학과 평가에서의 성과가 돋보인다. 총 8개 학과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모교 5개 학과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3개 학과가 최상위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 · 수학 · 환경공학 전공 모두 단독으로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자연 · 이공계열의 약진 뒤에는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었다. 이화는 1982년 자연과학대학을 신설하며 최첨단 공학관 3개동을 과감히 건립했으며, 여성 공학도 비율이 미미했던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성공과대학을 설립해 공학분야 여성시대를 준비해왔다. 2011년 세계적인 화학그룹 솔베이와 유례없는 규모의 산학협력을 체결했으며, '이화글로벌 톱5 프로젝트'를 통해 특화 연구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로 '과학 이화'의 혁신적인 비전을 실현해 왔다.

제12회 김옥길 기념강좌 개최

한·중·일 대표 건축가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제12회 김옥길 기념강좌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Rethinking Locality in Architecture’가 9월 20일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옥길 기념강좌는 여성교육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김옥길 선생님(8대 총장, 1961~1979)의 뜻을 기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옥길 선생은 모교 총장을 비롯 문교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여성교육과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김옥길 기념강좌는 건축의 지역성에 주목했다.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본교 공학융합연구소가 주관해 ‘건축’을 테마로 서구중심의 건축 패러다임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시아 건축이 건축문화의 변화와 함께 ‘지역성(Locality)’을 통한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는 경향성을 살피고 미래 건축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교육, 제3세계와 세계화에 대해 큰 가치를 두었던 김옥길 선생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약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모교 강미선 교수(건축학전공)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선욱 총장의 “이번 김옥길 기념강좌에서의 여러 담론을 통해 한국 건축이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건축문화의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개회사에 이어 건축학과 1회 졸업생 전숙희 와이즈건축 공동대표가 강좌의 의의와 화두를 던졌다.

강연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연사로는 한·중·일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제를 모았다. 한국 건축가로는 베니스 비엔나



레 초청작가(2012) 승효상(이로재 대표), 중국 건축가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2012)을 수상한 왕 슈(Wang Shu, Amateur Architecture Studio 공동대표), 일본 건축가로는 역시 프리츠커상(2010)을 수상한 니시자와 류에(Nishizawa Ryue, SANNA 공동대표)가 초청되어 현재 건축의 새로운 흐름인 '지역성'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이화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이화

모교는 지난 8월 유튜브 에듀(YouTube EDU) 서비스에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 사이트'(<http://www.youtube.com/ewhauniv>)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본교의 우수한 강의를 전 세계 어디서나, PC는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우선 공개되는 강좌로는 모교의 온라인 강의 공개

사이트인 '이화글로벌 온라인 캠퍼스'의 영어강의 7개 강좌 및 이화학술원 10개 강의, 명사특강 8개 등의 교육콘텐츠가 있으며, 이외에도 본교 홍보 동영상과 사이버캠퍼스 매뉴얼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33개 동영상들이 제공된다. 유튜브 에듀는 전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교육콘텐츠 페이지로 하버드, MIT를 비롯 750개 이상의 세계적인 교육기관과 파트너를 맺고 있다. 한편 8월 23일 국내 대학 최초로 페이스북 '학교 그룹' 서비스를 오픈했다. 페이스북 '학교 그룹' 서비스는 대학교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학생, 동창, 교직원 등 구성원만 가입할 수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다. '학교 그룹' 내에서 수업, 동아리, 프로젝트 등의 개별 그룹 활동이 가능하며, 파일의 업로드 및 협업 문서작성 기능을 통해 수업 강의록, 계획, 과제를 공유하거나 알림 기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기획처 홍보과



동창소식

졸업 연도순 게재

이보영 (피아노 56)

이 동창은 지난 5월 모교를 방문하여 1회 이화전문 음학과를 졸업한 어머니 김사라 동창의 사촌인 김영의 동창의 초상화(김영의 연주홀 소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조명, 음향시설 등에 쓰일 후원금 1만 달러를 기증했다.

김영교(영문 63)

김 동창의 수필집 ‘꽃 구경’이 2012년 4월 30일, 본국의 “서울문학출판부”를 통해 출간되었다.

김선향(영문 66)

심영학원(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인 김 동창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한 전문교육사업에 대한 공헌과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외 봉사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8일 미국 페어레이 디킨스 대학(FDU)으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이필옥(조소 66)

‘이필옥 개인전’을 7월 25일 - 31일까지 이형갤러리에 서 개최하였다.

김영희(약학 68)

수년간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회장으로 봉사한 김 동창이 8월 26일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문화회관은 시카고 동포들의 자랑으로 이화 동창들의 긍지를 복돋아 주는 곳으로 이화의 딸인 김 동창이 사재를 털고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희생과 봉사의 결정이다. 이에 일리노이 주지사는 한미문화 교류에 교량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을 이룩한 김 동창의 지도력과 비전을 격찬하며 Community Service

Leadership 상을 수여하였다.

이원영(생미 68)

지난 3월 미동부 최대 원예박람회인 필라델피아 플라워쇼에서 이 동창이 아름다운 춤과 노래, 홀라를 주제로 한 ‘창조’를 출품해 3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김영애(간호 73)

미주에서 수필가로 활약하고 있는 김 동창이 7월 1일 수필집 ‘한 생각 물결 되어 출렁일 때’를 출간했다.

김영순(무용 74)

김 동창이 이끄는 White Wave: Youngsoon Kim Dance Company의 2012 Summer Stage가 8월 17일 열렸다. 현대음악과 탱고등 다양한 무직과 함께 열정적인 현대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퍼포먼스였다. 뉴욕 무용계에서 한인 예술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 동창이 제 17회 KBS해의동포상(17th KBS Global Korea Award) 문화예술부문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광희(국제사무 74)

‘이 평화 부탁’ 대표인 이 동창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 돕기 운동 ‘희망의 망고나무(희망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단 남부지역에 총 3만 그루의 망고나뭇을 심었다. 현재는 기술 교육기관, 학교, 망고 묘목장이 함께 있는 ‘희망고 빌리지’ 건축을 추진 중이다.

김희자(영문 76)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인 김 동창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장합동교단 소속 충신대학교에

서 111년 역사 최초의 여성 부총장에 임명되었다.

강순열(가관 77)

섬유미술 타페스트리 작가로 영국에서 활동 중인 강 동창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Waterperry House 에서 열리는 Art in Action에 초대되었다.

이공주(제약 77)

이화여대 바이오융합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동창이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 흥상을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프로테오믹스(단백질 분석 기술)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박경숙(무용 80)

시립무용단 단장을 맡았던 광주대 무용과 교수인 박 동창이 한국발레협회 광주, 전남지부장을 맡았다.

최숙희(의학 80)

최 동창이 8월 가톨릭 대학원에서 '생명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제목은 '한국 의사들의 의학 전문직업성과 소명에 관한 평생교육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명윤리를 정식으로 가르친 곳이 없고 박사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호라 할 수 있다.

박신정(조소 85)

강원도 정동진에 위치한 조각공원 '하슬라아트월드' 대표인 박 동창이 국내외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하슬라 예술제, 국제야외미술관 심포지움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며 문화허브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남연숙(도예 86)

광에서 매년 광 여성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는 남 동창은 현재 광 필리핀 미술가 회원이자 광 예술 인문 협회 회원이다.

이희준(악학 92)

극작가인 이 동창의 극본으로 뮤지컬 '미남이시네요(연출 김운기)'가 8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세종M시어터에서 열렸으며 9월에는 뮤지컬 '쌍화별곡(연출 이란영)'을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했다.

김윤경(조소 93)

공근해갤러리에서 6월 21일~28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박영희 (동양화 93)

박 동창이 'Summer story'라는 주제로 현대백화점 미아점 갤러리H에서 7월 4일부터 25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송지현 (장미 94)

미국아이오와 주립대학(IOWA State Univ.) 인터리어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 동창이 금년(2012~2013)에 테뉴어(종신교수)로 임명 받음과 동시에 Associate Professor로 프로모션을 받았다.

조은희(조소 94)

종이배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조 동창의 개인전 'H.O.P.E'가 6월 26일~ 7월 22일까지 SAC Artist 기획 초대전으로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한영아(국제사무 94)

에널리스트인 한 동창이 작년 한 해 국내 상장기업을 담

당하는 전 세계 애널리스트 중 투자추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애널리스트 43명에 선정되어 제 3회 중앙·봄슨로이터 상을 수상하였다.

김사란(관현 00), **최지원**(관현 01), **홍지연**(관현 02)

9월 5일(수)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현악 듀오의 밤을 가졌다

박성희(성악 01)

성악가인 박 동창이 휴양지로 유명한 몬테네그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제17회 국제뮤직페스티벌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공연했다.

김순임(조소 02)

‘나는돌’이라는 주제로 6월 4일-7월 31일까지 카이스트 Reserch & Art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재순(조소 02)

개인전 ‘이어짐에 의한 세계’를 6월 7일-13일까지 5포인츠아트스페이스에서 열었다.

장유정(조소 02)

6월 22일-7월 15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가꾸어진 몫’ 개인전, 8월10일-12일까지 경기창작센터에서 오픈 스튜디오와 그룹전을 가졌다.

홍지연(관현 02)

첼리스트인 홍 동창이 첼로 독주회를 8월 19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가졌다

최유진, 현준희, 박지현(관현 03)

최 동창이 귀국 플루트독주회를, 현 동창은 바이올린 독

주회를 금호아트홀에서 가졌다. 또한 박 동창도 귀국 오보에 독주회를 8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졌다.

김아영(도예 04)

‘전집추얼 니닉 3.0’으로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권미혜(피아노 06)

‘권미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8월 22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가졌다.

조장은(한국화 06)

화가인 조 동창이 갤러리토스트에서 ‘여자 서른-아무도 내게 칭찬하지 않았다’ 개인전을 열었다.

정다은(정의 09)

맨해튼 소재 프로듀스 클럽에서 뉴욕대학원 정치예술학과 졸업 작품으로 한국 이민의 역사를 다룬 "the Picture Bride"를 성황리에 공연했다.

김경후(독문 93)

시인인 김 동창이 ‘문학동네시인선 019’ 편으로 시집 <열두 겹의 자정>(2012, 문학동네)을 펴냈다.

박인원(독문 93)

9월 15일 주한독일문화원 유럽홀에서 개최된 한독문학번역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제8회 시몬느 번역상(제15회 한독문학번역상)을 수상했다. 현재 독문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원 박사는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몰락하는 자 Der Untergeher>(문학동네, 2011) 번역으로 상장과 상금 오백만원을 수여했다.



2012년 8월 31일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권민경 김나랑 김명옥 김봄이 김소영 김주희 김채운
류민수 서미숙 서정은 송슬기 엄하연 유지은 이유진
이정은 이진경 이해숙 임소영 임은주 장명원 장은영
전우주 정다현 조현옥 최다희 최지희 황선경 황정현
Zhao FangYuan 장유영

중어중문학전공

강수진 구지현 권성월 김 설 김주영 김태희 김혜림
박건영 박수연 박예은 박지민 박혜연 배가영 신한별
양수연 양지원 유혜인 이영경 이해원 정문경 정신혜
조선영 조세윤 최선아 최수지 최윤영 최지윤 한혜원
홍유나 황지나 황채윤 JIN ZHI XIN

영어영문학전공

계소훈 곽소담 곽정미 권바다 김규민 김민아 김세영
김수진 김승혜 김혜연 나은별 남선우 류승연 민경원
박은경 박지은 박채영 박희원 서지윤 신소영 신지형
신혜림 엄지아 유미정 윤세라 이가연 이민경 이민용
이유정 이조아 이주랑 이주현 임선영 임하나 장아경
장윤혜 정다운 정지는 조미나 조수연 조예은 조한빛
최지연 한지선 함유경 김민정 김유하 김주희 김진실
박양지 이지현 정수현 조희영 황인희

불어불문학전공

강보아 김근혜 김수린 김지영 김지예 김한나 남다름
박성은 박충진 박혜경 박희은 서윤정 안지용 이금정
이보라 이소라 이슬기 이연지 장윤주 정혜연 조성은
현지승 홍수진 홍연희 황혜연 배혜영

독어독문학전공

김민정 김선정 모유미 박소현 박소희 원서현 유이슬
이도유 이율리 이지은 이현지 황현지

사학전공

김경미 노수영 노혜민 백수정 선아름 이다예 이민하

이수연 이은지 이지민 정보람 정아람 조현아 조혜진
신수림 최유진

철학전공

고희원 권현진 김보경 김지연 이소미 이주예 정재선
홍보람 조한나

기독교학전공

김나나 김하윤 박경란 신정민 이경민 이지윤 해슬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권용지 권효림 김가연 김미란 김셋별 김잔디 김지수
김지연 김지은 박나은 박민지 박소연 박주연 박준희
신혜정 엄다정 옥정혜 유지윤 이선빈 이신애 이지영
전송이 주혜미 진영은 한 솔 허 별 홍윤정 홍은화
권재희 권정아 박소현 박희원 엄지아 이해숙 정신혜
제정민 조현아 최혜정

행정학전공

구지혜 김민정 김민지 김유경 김정이 박다해 박선영
박소정 박주란 양지은 유보금 유성유 이소윤 이 인
이현주 장소명 정정혜 최슬기 Li, Na 백옥경 신혜영
이시연 장은영 정지혜

경제학전공

경임이 구은지 권서희 김다경 김민주 김소희 김아현
김윤정 김지수 도현영 박민경 박민영 박성아 박지수
박지영 백옥경 서지현 손예지 송아름 심새별 양예빈
엄규숙 오경민 유연주 윤지연 이가영 이가영 이민우
이 솔 이수미 이수연 이연우 이영연 이용주 이은정
이정선 이지윤 이지혜 이한나 이해영 임다혜 임민정
임선화 정원진 정혜정 조성은 조수연 주아름 지다정
최영옥 최혜리 하선재 한은미 한재인 홍지연 감미경
강보연 김봄이 김영은 김유리 김지슬 김지수 김지희
김태희 김혜림 나은별 남정은 박다해 박미나 박민지
박성희 박수연 박예슬 박예은 박은경 박은정 박정원

박지민 박지은 박호진 서미숙 서정은 석승운 성하림
송다예 송수현 안지용 양수연 양지원 양지은 유성유
이경선 이소윤 이신애 이유민 이유정 이유진 이유진
이윤영 이율리 이은혜 이 인 이정현 이주현 임연주
임은주 임지원 장예지 장지혜 정문경 정수연 정정혜
최다희 최윤희 최진옥 표예림 한 솔 홍은화 황선경
황지나 황지영

문헌정보학 전공

구경미 김은지 김혜진 양지원 이시연 이지영 임지원
조상아 조수현 최보임 박민영 송슬기 신동은 이민우
이정선 이지혜 장명원 표혜리

사회학전공

김수민 김정선 김호정 연금옥 우현정 이수빈 이윤영
이지은 전해림 정다민 최혜정 최효은 한누리 황소희
김나나 김나랑 이은영 전주희 채진솔

심리학전공

강보연 김민경 김선영 김유진 김유하 김효영 남정은
박수정 송윤선 이다혜 이주영 이해림 정수현 최소은
최혜원 한주현 함예림 게소훈 팍민정 김가혜 김라엘
김민지 김수진 김잔디 남궁미 남향민 노혜림 류민수
박은빛 박민환 손예지 안소라 엄규숙 이영주 이예지
이 화 정다우리 정윤경 조아라 한혜원 허담지 현지승
황현지

소비자학전공

김지혜 남향민 신은섭 윤선미 이정현 정다우리조인영
최가혜 최예지 구경미 김보라 박지수 유연주 정수현

언론정보학전공

김소연 노유진 박성희 박소현 박영신 석승운 성진희
손정은 원희영 전 린 정아영 조윤희 채진솔 최원진
최유진 최지은 한여진 문호은 박나은 이주예 이지영
전송이 최나래 표정연 함예림

광고 · 홍보학전공

김가혜 김경윤 김지원 김희연 박빛나 성현정 오승은
이보영 임정은 팍소담 박수정 손정은 이혜진 정아영
최유진

방송 · 영상학전공

고재원 김보라 김소연 엄한아 이보나 전은정 정유진
정윤경 최나래 표정연 황인희 Shi, Sai 김지원
신혜림 이경민 이도유 최원진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박은정 연빛나라 이유진 이은혜 이지은 이채원
이혜숙 임아람 장미경 장예지 정소희 이정화 임희진

통계학전공

도승애 유민선 윤수인 이민정 이유민 이정화 임연주
임은빛 최나라 최진옥 표예림 황지영

물리학전공

김지은 김지혜 나윤경 신지선 윤미소

화학전공

김다영 김윤희 나태은 박소영 이윤희 하선화

화학 · 나노과학전공

이지영 임희진 정하영 조아라 천성희

생명과학전공

김서현 김주송 박세미 반민진 성인영 안지은 오승주
육채민 이경선 이승민 이정현 조아라 최수인 최인경
홍선희 이현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백지원 신지영 이지민 조한나 한영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권도희 김두리 김진영 박상원 변우정 서유진 심민선
이다연 이주혜 최아름

컴퓨터학전공

박정원

전자공학전공

김나리 김지민 남현지 노수진 이해승 주선아 최문정
최수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고민서 길명규 박소은 이주연 정자민 하재은 함성원

건축학전공

서 은 윤수경 황윤정

건축공학전공

김보람 김서희 박송희 박수빈 신예진 전은주

환경공학전공

권지혜 김문경 김선주 박영미 송희도 이상미 이영주
이윤경 이혜정 장하나 정다미 조서윤

식품공학전공

강은정 나지선 이혜진 장지은 전옥현

예술대학

건반악기전공

박인환 박지은 허미사

관현악전공

김민수 박희선 이예지 전진희 한다운

성악전공

이선희 장유영 허세원

한국음악전공

강솔원 한수진

동양화전공

권지혜 김나정 김윤정 김은혜 박지영 오호진 이다인
이예은 정유진 정진아 최향아 천정현

서양화전공

곽민정 김여진 김유란 류혜선 유수란 이민정 이정선
장미란 정혜수 황민선 신현정 심혜숙

조소전공

김나연 김수현 이수원 이정서 함소희

섬유예술전공

강민지 김성희 심혜숙 이슬아 이지원 정혜임 지선영
천정현 최현화 함연수

도자예술전공

공소윤 신현정 윤채원 이유정 이지연 정수현 최은신

공간디자인전공

김은선 이세일

시각디자인전공

강희선 김윤진 유호영 이고은 한유리 홍선행

산업디자인전공

김수진 김유현 나성은 서조은 이명하 정세영 정혜은
진영은 탁예지

패션디자인전공

문지연 변수현 손서영 원보형 이지예 전해선

영상디자인전공

김나은 유상형 이채연 이현정 최은신

의류학과

권정아 김나경 김유림 문호은 박수진 설다원 송기승
안소홍 안현욱 양태영 이민정 이상규 이해진 전은정
조세진 김은송 박성은 이민용 조윤아

무용과

김다애 김문주 김아람 김은송 김지정 배혜영 오윤형
우태경 윤서희 이은혜 이한제 정록이 조한나 최유진

최윤선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예솜 강주희 고상한 김누리 김라엘 김설아 김아현
김주영 김창희 김혜진 배은진 신동은 윤소희 임은영
정미건 정수연 조희영 최보영 최수진 최지현

유아교육과

김혜림 박양지 엄지연 이순영 이 화 최재민 박선영
어미진 해슬기

초등교육과

고시은 김지수 이바름 이윤희 이주연 임서영 최소현
최윤영 김설아 정영숙

교육공학과

강민정 박다미 박지영 윤영숙 이휘원 전윤희 허담지
황진영

특수교육과

권지연 김선정 김연수 박선영 박은희 신수빈 어미진
이지원 이해나 조세영 채화연

영어교육과

김이나 남혜림 배서윤 송민정 조문영 조유정 강예솜
고상한 박지영 정미건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강하늘 구민서 이해림 이해진 전정은

(지리교육전공)

강유리 김지은 안소라 인지민 주예진

(일반사회교육전공)

김희정 변혜민 신은주 이민정 전지민 최무진 박다미
박은희 윤영숙 이지원

(공동사회전공)

변혜민

국어교육과

정영숙 한해원 김누리 신수빈 최수진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김예지 조규민

(화학교육전공)

김현애 박혜연 신해민 이이슬 정보경

(생물교육전공)

박하영 박현지 박혜미 양혜빈 최정원 황사라 안주희

(지구과학교육전공)

강보정 박혜정 안주희 황새미

(공통과학전공)

조규민

수학교육과

유혜원 이유희 주민정 주혜리

보건교육과

이상미

법과대학

법학과

강혜인 고요정 권재희 김다미 김대린 김도희 김민승
김민정 김수아 김수진 김양지 김은영 김정원 김현아
김혜진 남설아 박리라 박상미 박윤경 박은진 박주현
박진희 박하나 박혜림 박효진 방지영 서경란 서지예
성하림 신연숙 신혜영 안정숙 양나래 양이정 양지희
오 늘오유진 우지윤 유한결 윤나리 윤서희 윤정현
윤혜주 이새봄 이유라 이재은 이정모 이혜림 이혜승
이호림 임진아 장인진 장지혜 정은경 정인지 정주리
조나에 조현아 주보영 지성은 최기원 최성희 최유리
최희재 탁가영 표혜리 하예원 함혜진 홍재경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감미경 고영미 곽미라 곽주은 기지영 김규리 김민아
김민정 김지희 김희진 노은송 노정현 노혜림 맹소연
문지영 박미나 박상은 박예슬 박진아 손수인 손신혜
송다예 송수현 안진아 유현주 윤고운 이경미 이정현
이지현 임주현 전주희 정나현 정혜원 조미리 조민경
조현경 주소연 최윤희 한승조 홍영지 Ku, Lu Xi
강보아 강수진 권현진 김나경 김민주 김선영 김 설
김승혜 김주영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노혜민 류승연
박건영 박성은 박소현 박수진 박희은 배은진 서지현
송아현 송윤선 신영하 신한별 신혜정 안현옥 양지원
양태영 오승은 우현정 윤성하 이민정 이상규 이수미
이은지 이조아 이지희 이진경 이혜영 임성은 임은빛
임하나 장윤주 전 린 전해림 정지혜 정혜연 조미나
조상아 조선영 조세진 조예은 조윤희 조인영 조현아
조현옥 주아름 최보임 최서연 최영옥 최재민 하선재
함유경 홍유나 홍윤아

국제사무학전공

강지혜 문윤경 윤진아 이서현 이유림 주효경 최서연
팽가은 권성월 김근혜 김혜진 남다름 원서현 유혜인
이선희 이화연 정다운 최윤영 황혜연

국제사무학과

LIN XIAOYU 엄지연 JIN ZHI XIN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과

김미진 김 봄 김유리 남궁미 신수림 신지혜 신지혜
윤성하 이상은 이유진 이은영 장희선 전희연 정지혜
정지혜

식품영양학과

김보경 김영빈 민지영 이수진 이은진 이지민 이희진
조윤아 TANG JIAWEN 전옥현

보건관리학과

박여진 유세윤 이여울 이영주 조유진 차미란 허민지

스크랜튼대학

자기설계(통합적문화연구)전공

권서희 이가연 최지은

자기설계(디지털인문학)전공

김경윤 이보나

자기설계(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

권호림 남유선 박성아 성현정 신지형 원희영 윤지연
정다민 최혜정 한여진

자기설계(사회와정의)전공

박소연

국제학전공

김수경 김영은 김지솔 김지현 김하나 남유선 노도희
송아현 신영하 신지혜 안지현 유미루 이상아 이주경
정승연 제정민 조은선 하선형 홍윤아 LisaChoi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곽예림 김진실 배다희 손진선 신혜진 정나은 주보라
홍예나

관현악전공

강은원 박다솜 안현정 이민정

성악전공

박초롱 이재민 정예림

성악과

전다예

작곡전공

김두리 장미리 장혜리

작곡과

김지은

한국음악전공

안영재 정원주 최우선

한국음악과

문지영 오정선 이지희

조형예술대학

한국화전공

설애리

회화 · 판화전공

김지혜

조소전공

박고운 이은주

산업디자인전공

권영희 박호경 인보경 최보금

패션디자인전공

박다솜

섬유예술전공

현유진

도자예술전공

박윤하 박은빛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김지현 박혜진 우수영 이화연 황지나

사회체육학전공

이여진

무용과

박미혜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전공

손지은 조윤희

식품영양학전공

나윤진

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구지현 이수빈

미국학전공

김소연

유럽학전공

박소희 허 별

미술사학전공

권민경 권지혜 김나정 김윤정 김지예 류혜선 박윤하
배서윤 유수란 이민우 이연우 이지민 전은정 정은경
정진아 정혜은 지다정 최현화 최혜원 한누리 홍선행
황윤정

여성학전공

이호림

전문영어전공

고재원 김민정 정지은 최혜원 한지선

NGO전공

이민하 전희연

북한학전공

엄한아 이주량

인지과학전공

정재선

도덕 · 윤리교육전공

김주영 신동은 전윤희 최지현

과학기술경영전공

정다미

재무경제전공

경임이 김아현 김윤정 서지현 손수인 이지윤 임선하
정원진 홍윤정

공동사회전공

강하늘 구민서 김지은 김희정 신은주 안소라 이민정
이해림 이해진 인지민 전정은 최무진

공동과학전공

강보정 김예지 김현애 박하영 박현지 박혜미 박혜연
박혜정 신해민 안주희 양혜빈 이이슬 정보경 최정원
황사라 황새미

아동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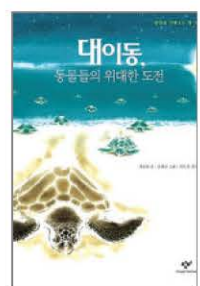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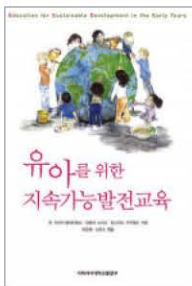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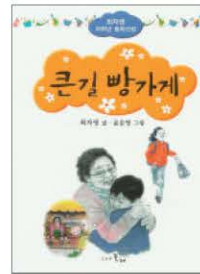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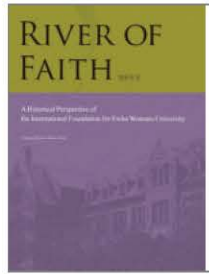
손진선 이영주 정원주

자연과학과철학전공

신지선

일본언어문화전공

김미진 김태희 서지윤 이민경 이새얼 이소미 이혜림
조수현



신장현(교육 57)

River of Faith(믿음의 강)

기록서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0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재정적·문화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화국제재단의 40년 역사를 정리한 책. 재단의 설립 배경과 활동을 담고 있다.

김영교(영문 63)

꽃구경

수필집 / 서울문화출판부

그때 그 남자의 꽃, 늘 푸른 계절, 황금빛 키스 등 여섯 개의 묶음으로 된 수필집으로 신앙 간증과 일상에서의 아름다운 배려 그리고 감사함을 담고 있다.

최자영(기독 66)

큰길 땡가게

동화집/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선집. 동화작가인 저자가 젊은 엄마 시절에 쓴 동화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창작해온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그림의 미학을 알려주고 있다.

이광자(간호 71)·박경옥(보교 94)

건강 상담 심리

심리상담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건강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관련 교재인 동시에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인 책.

우혜전(신방 74)

영어 잘하는 법

영어 교육/헤이즐넣출판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저자가 블로그에 올렸던 영어 관련 내용 중 조회 수가 많은 것을 뽑아 전자책 형태로 직접 출판하였다.

박은혜(교육 83)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번역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유아교육에 어떻게 적용·실행되고 있는지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예를 함께 소개, 우리 교육 실정에 맞는 적절한 연구사례를 제시함.

최내경(불문 89)

말문이 터지는 프랑스어 첫걸음

쉽고 재미있는 프랑스어를 시작하여 말문을 트도록 이끌어주는 회화 교재. 동물 캐릭터 주인공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회화를 배울 수 있다.

정승원(독문 94)

대이동 동물들의 위대한 도전

어린이 과학교양/ 창비어린이

사막, 초원, 바다, 하늘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대이동을 통해 혹독한 자연환경에 맞서는 경이로운 동물들의 의지와 생명력을 보여준다.



축하합니다



이연숙(교육57) 동창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받아

현 한국여학사협회 이사인 이 동창이 제17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여성지위향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한국여성연합회 회장, 제8대 정부 제2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교육네트워크의 고문이다.



윤성주(무용 73) 동창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취임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로 20여년간 재직했던 윤 동창이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무용단체인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에 임명되었다.



한명옥(무용 73) 동창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취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무용단체인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한 동창은 인천 시립 무용단 예술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고월출(신방 75) 동창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인천시 서구의회 5대 구의원 및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던 고 동창이 7월 1일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인(가관 88) 동창 서울사이버대 총장 취임

서울사이버대 입학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던 강 동창이 8월 16일 부로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서울 사이버대 신임 총장에 선임되었다.

이대 동창회원을 위한 종합건강진단 특별 우대 행사 안내

이대여성건강진센터/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창 회원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 특별 우대 혜택을 드리오니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대권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 대 혜 택

- 대 상 : 이대 동창회원 가족 및 지인
- 혜택내용 : 종합건강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 우대권 유효기간 : 2013년 8월 31일까지(유효기간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우대권 이용안내 : 1매 2인 사용 가능
(내원시 우대권을 제시해야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상담 및 예약 : 02)2650-5117, 5118

절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여성건강진센터/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검진 특별 우대권

1매 2인 사용 가능 /
종합건강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이대목동병원
EWH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이대여성건강진센터/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검진 특별 우대권

1매 2인 사용 가능 /
종합건강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이대목동병원
EWH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유효기간 : 2013년 8월 31일까지

유효기간 : 2013년 8월 31일까지



S.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S.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